No.1 시니어 전문 케어
센터메디컬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기독일보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FRIDAY, November 22 2024 Vol. 939

둘로스선교교회 이병호 목사 취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세워갈 것"

LA 한인타운 6가와 Shatto Pl에 위치한 둘로스선교교회가 17일 오후 4시에 이병호 담임목사 취임 예배를 거행했다.

이날 1부 예배에서는 이병억 목사(LA지방회 서기)의 성경봉독, 이대연 목사(LA지방회 부회장)의 설교로 진행됐으며 2부 담임목사 취임 예식에서는 한천영 목사(치리목사)의 담임목사 소개, 이대연 목사의 서약, 치리권 부여, 공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모든 순서는 이용원 목사(샌프란시스코교회 원로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병호 목사는 답사의 자리에서 "저의 한결같은 보금자리가 되준 이모부와 끊임없는 사랑과 눈물의 기도로 목회의 여정 동안 함께 해준 한국에 혼자 계신 장인어른께 감사를 드린다"며 "지난 3개월 동안 20여년 동안 눈물로 교회를 지켜온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 집사 성도분들이 저를 담임목사로 청빙해 주셨다, 목양의 직분을 다해 성도님 한분 한분을 귀하게 여기며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나가는 데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회복의 과정을 갈 것이고, 땅 끝까지 영생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는 동역자들과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원한다"고 말했다. 안용식 목사(김해제일교회 원로)는 권면에서 "이 목사님께서 둘로스교회에 왔으니 종의 목회를 하기를 권하고 싶다. 갈라디아서에는 '이제 사람에게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 하지만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한 교회의 문제를 보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할례도 받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더욱 강하게 경고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다. 복음의 변질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으로 복음을 왜곡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고 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중일 목사(방주교회)는 권면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지정하셨다. 이는 쉬는 날, 즉 안식을 의미한다. 당시 이 글을 읽었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것이다. 종은 휴식이나 안식이 없고, 계속해서 일만 해야 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 둘로스선교교회가 다양한 사람들과 만남을 갖고 목양하며 섬길 때, 참된 안식을 지키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다. 박성민 목사(전 아주사퍼시픽 대학 부총장)는 축사에서 요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말씀을 인용하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했다. '택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에서 선택의 의미와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 우리 삶에는 많은 선택이 있다. 내가 선택을 한다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된다. 하지만 내가 선택하는 것은 객체가 되며, 그 객체 속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하며, 선택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이어 "결국 내가 내린 결정은 나를 삼킬 수 있다"며, 선택이 주는 책임과 그로 인한 결과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마스 맹 기자



LA 한인타운 6가와 Shatto Pl에 위치한 둘로스선교교회가 17일 오후 4시에 이병호 담임목사 취임 예배를 거행했다. 앞줄 왼쪽에서 네번째가 이병호 목사 ⓒ기독일보

美 대형교회 목사 "트럼프 지지한 기독교인들, 기도해야"


잭 그래함 목사. ⓒThe Christian Post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출마 결과 재선에 성공한 가운데 미국의 한 대형교회 목회자가 그를 지지한 기독교인들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촉구했다.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프레스턴우드 침례교회 잭 그래함 담임목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무릎을 꿇는 것이어야 하고, 자세는 기도해야 하며, 우리는 국가의 연합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국가가 깊이 분열되어 있고 국민의 절반이 선거 결과에 실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이 바로 기회"라며 "만약 여러분이 저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지지했다면, 이제 우리는 대통령과 우리 정부와 함께 잘 통치하고 반응할 기회"라고 했다.

그래함 목사는 "지금은 공격적인 행동을 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정치적 승리를 공개적으로 축하하는 문화로의 전환을 관찰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제스처는 분열을 치유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래함 목사는 "증인이자 신앙의 대사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치적 순간에 비슷한 정도의 은혜와 자제력으로 대응해야

이미경 기자 ➔ 2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미국↔한국₩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태양광, 솔라!!
2024년 대박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연방ITC: 30% 이상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전기로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북미주 개혁교회(CRC)
ALL NATIONS CHURCH
ANC 온누리교회
추수감사절
Give thanks to the LORD
JESUS LOVES YOU



Sunday Worship Servises

1부(Traditional Worship)	07:30 am	본당(Main Sanctuary)
2부(Blended Worship)	09:30 am	본당(Main Sanctuary) / Youtube Live
3부(Passion Worship)	11:30 am	본당(Main Sanctuary) / Youtube Live
GM(Disabilities Worship)	09:30 am	M913
ANCC(English Worship)	09:30/11:30 am	체육관(Gym) / Youtube Live

10000 FOOTHILL BLVD., LAKEVIEW TERACE, CA 91342 / 818-834-7000 (담임목사_ 김태형) WWW. ANCONNURI.COM

“우리는 실수가 있지만 어려움 통해 교회는 성장해”

제 3회 위브릿지 컨퍼런스 목회자 특강서 강조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가 목회자 특강에서 자신이 걸어온 이민 목회 여정을 나누며, 목회와 평신도 사역의 본질을 되새겼다. ⓒ기독일보

제 3회 위브릿지 컨퍼런스가 10일부터 12일까지 빅베어레이크 근처에 위치한 아름다운교회 기도원에서 열린 가운데,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가 목회자 특강에서 자신이 걸어온 이민 목회 여정을 나누며, 목회와 평신도 사역의 본질을 되새겼다.

강의 주제는 ‘큐티 목회와 평신도 사역’(에베소서 4:11-16)으로, 이 목사는 40여 년간의 목회 경험을 바탕으로 큐티와 성경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목회는 포기의 연속, 자기 것을 내려놓는 과정”

이종용 목사는 이민 초기부터 오늘날까지의 목회 여정을 돌아보며, “목회는 포기의 연속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36번이나 이사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이민자의 삶이 어떤 어려움이었는지를 설명했다. 이어 “목회는 자기 것을 내려놓는 과정”이라며, 교회와 사역을 위한 희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예계를 떠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

이 목사는 한때 연예인으로 활동했던 경험도 나누었다. 그는 연예계를 떠나기로 결심했던 순간을 회상하며, “예수님을 믿고 방송을 포기한 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라 생각한다. 이것이 첫 번째 포기였다”고 말했다.

“큐티가 목회의 근본, 말씀 적용이 핵심”

이 목사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큐티’라고 언급했다.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목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될 때 비로소 목회자가 될 수 있다”며 큐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주 2회 큐티를 실천하고 있으며, “주석책은 나중에 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의 적용”이라며 신앙 생활에서 적용의 중요성을 말했다. 특히 “신앙은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라며 실천적인 신앙을 강조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가정, 사도행전의 정신을 따라”

그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을 나누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집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라며 “목회자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교회를 이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 실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주시며, 어려움을 통해 교회가 성장한다”고 덧붙였다.

“고난을 통한 축복, 목회의 우선순위”

그는 고난과 역경을 겪으며 얻은 교훈도 나누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했다”며, “어려움을 겪고 나면 교회와 성도들이 튼튼해지고, 그로 인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목회의 우선순위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어야 한다”며 사역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되새겼다.

“교회 건물 구입과 비전의 포기”

교회 건물 구입 과정에서 이종용 목사는 자신의 야망을 내려놓았던 경험을 나누었다. 그는 “당시 가지고 있던 크리스천 공연을 하겠다는 꿈을 포기했지만, 그 대신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은 것을 허락하셨다”고 말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감사패 받고 싶다”

이 목사는 강의를 마무리하며 “천국에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싶다”는 소망을 전했다. “아직도 쓰러지고 일어나는 일들이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과 훈련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며, 자신이 걸어온 목회의 길이 다른 이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참가 목회자들을 위해 혜민병원이 수천불 상당의 종합건강 검진권 예약증을 기부하고 이성수 소장이 이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혜민병원 이성수 소장

토마스 맹 기자

디카시인협회, 2024년 신인상 공모전 개최



디카시인협회(DICAPOET ASSOCIATION, 이하 디카시)와 디카시인연구소(DICAPOEM INSTITUTE)가 2024년 신인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미주 한인사회와 신인 디카시 작가를 발굴 및 육성하고, 미주 내 디카시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기획되었다. 참가자들은 디카시 창작물 3편을 제출해야 하며,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신인상 수상자를 발표한다.

디카시는 “시와 사진이 결합된 형태의 창작물로, 독창적인 시각과 문학적 감각을 요구한다. 디카시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재능있는 신인들이 이번 공모전을 통해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 응모 자격: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누구나
- 응모 작품: 디카시 작품 3편
- 응모 기간: 2024년 11월 10일(일) ~ 11월 30일(토)
- 결과 발표: 2024년 12월 10일(화) (개별 통보)

수상자 혜택 입상자는 디카시인협회 정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등단증이 발급된다. 또한, 대학 입학을 앞둔 학생들에게는 커뮤니티 서비스 크레딧이 제공된다.

응모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표절이나 사진 도용, 모방 등의 부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당선이 자동 취소된다. 당선자는 협회 회원으로 가입해 매달 한 번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

이번 공모전은 재능 있는 신인 디카시 작가들의 발굴과 함께 한미 디카시 문화 확산의 기회를 제공한다.

문의는 213-422-8916(총무 최경일)으로 하면 된다.

이메일: dicapoet@gmail.com, dicapoeminstitute@gmail.com ,

주소: 13939 BOXWOOD PL, PANORAMA CITY, CA 91402.

➔1면 기사 〈美 대형교회 목사 “트럼프〉에 이어서

한다”면서 분열된 국가에 대한 그의 가장 큰 희망인 영적 부흥과 각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은 겸손과 성실함을 많이 보여야 하며,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라며 “우리는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항상 부름을 받아 온 일, 즉 복음을 선포하고 이웃과 나라에 증거해야 한다. 우리는 신앙을 실천하고 미국에서 영적 부흥과 영적 각성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변화를 만들 수 있다. 결국 제가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고 했다.

앞서 그래함 목사는 트럼프 당선인과 J.D. 밴스 상원의원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선거에 앞서 그래함 목사는 조지아주에서 열린 국가신앙자문위원회 회의에서 폴라 화이트 목사와 함께 트럼프를 위해 기도한 기독교 지도자들 중 한 명이었다. 그래함 목사는 “예수님,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사랑합니다. 당신이 도널드 J. 트럼프라는 사람을 일으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위한 전사가 되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라고 기도했다. 그는 “그를 보호해 주시고, 축복의 손을 그에게 얹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를 다시 일으켜 우리의 대통령이 되게 하시면서, 여정에서 그에게 힘과 지혜와 기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라고 했다. 선거를 앞두고 그는 선거에서 투표를 반대하는 동료 기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비난을 표했다. 그는 “만약 여러분이 목사이거나 기독교 지도자로서 이 가장 중요한 선거에서 투표하지 말라고 조언한다면, 교회뿐만 아니라 지켜보는 세상 앞에서도 모든 신뢰를 잃을 것”이라며 마태복음 5장 14-16절을 언급했다. 그는 앞서 CP에 “지도자로서 수십 년 동안 일하면서 교회가 ‘결혼 문제’와 같은 화제가 되는 문제를 그 어느 때보다 더 다루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경은 남성과 여성에 대해 분명하다. 그 분은 그들을 창조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가족에게 다가가는 교회에서 무지개 깃발을 내걸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에 반대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남가주교협 총회, 한기총과 MOU
“전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이 전파되길”

회장에 샘신 목사, 수석부회장에 김은목 목사
정서영 목사 "양 기관이 성장하는 기회 되길"
정해진 증경회장 "WEA총회 한국 개최 반대..담대한 결단"



남가주교협과 한기총 임원들이 MOU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독일보



MOU를 체결하고 있는 최영봉 목사(좌)와 정서영 목사(우). ©기독일보

제 55차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총회가 13일 오전 11시에 충현선교교회(국윤권 목사)에서 거행됐다.

총회에서는 회장에 샘신 목사(샘커뮤니티교회), 수석 부회장에 김은목 목사(LA평화교회)가 각각 선출됐다. 이날 특별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와 임원진 등 20여명이 방문해 남가주교협과 한기총이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롬 8:28)란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정서영 목사는 “한기총이 동성애와 세속화 물결에 대항해 한국교회를 보호했듯이 태평양을 넘어 미국의 교회와 연합해 복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는 역할을 감당하기 원한다”며 “함께 힘을 합쳐 한국과 미국이 다시금 순수복음의 정신으로 회복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의 자리에서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으로, 온 몸을 다해 싸워야 할 때가 있다. 목사님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려고 하면 안된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불편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양 기관이 합력해서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남가주교협 직전회장 최영봉 목사는 “조그마한 전화기 하나로 전 세계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는 한기총과 남가주교협의 융합을 통해 전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해본다”며 “서로 연합해서 힘을 합쳐나가는 영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MOU 체결식에서 축사를 한 정해진 목사(남가주교협 증경회장)는 “먼 길을 온 한기총 임원들께 감사하며 축하를 드린다. 엊그제 한국에서 WEA 총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한기총에서 정식으로 반대 성명을 낸 것은 담대한 결단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복음주의 연합회에서 보이는 다원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 예수가 아니더라도 천국에 갈수 있다는 발상이 위험하다. 한기총에서 성명서를 낸 것은 대단한 결정이다. 이번에 양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역사의 길이 남을 일이다”고 했다.

남가주교협 회장으로 선출된 샘신 목사는 “교협이 연합기관의 역할을 해야되겠다. 그래서 사회단체와 교회가 더불어서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제가 1.5세로서 올해 1세 2세 3세와 연합해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겠다”고 했다.

수석부회장 김은목 목사는 “목회하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섬길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1부 예배에서는 인도에 샘신 목사, 대표기도에 김은목 목사, 성경봉독 심진구 목사, 축도에 한기형 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진행된 MOU 체결식에서는 사회에 이성우 목사, 기도에 김정환 목사(한기총 사무총장), 업무협약서/협약패 교환, 축사에 이현숙 목사(한기총 공동회장), 정해진 목사, 김경만 목사(한기총 사회위원장), 지용덕 목사(교협 증경회장), 폐회기도에 최학량 목사(교협 증경회장)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어 열린 총회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토마스 맹 기자

샬롬 김 박사, “제가 발견한 비전 실현의 비결은…”

GBC ‘하나님의 경영과 시간 경영 세미나'

미주복음방송(이영선 사장) 주최로 열린 샬롬 김 박사의 ‘하나님의 경영과 시간 경영 세미나’가 지난 11월 18일(월)에 성황리에 개최했다.

목회자, 평신도 리더, 은퇴 사역자, 크리스천 사업가 등 50여명이 참석해 가정과 직장을 세우는 성경적인 시간 경영에 대해 배웠다.

비전멘토링인터네셔널의 대표인 샬롬 김 박사는 창세기와 천지창조에 제시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경영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빌 게이츠 등 성공한 경영자들의 시간 경영 비법을 살펴보며 성공적인 삶을 위한 시간 경영의 원칙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별히, 샬롬 김 박사의 저서 『GOD THE CEO 최고 경영의 신』에서 증명한 하나님의 경영원리 이론과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의 목표에 따른 경영과 시간관리 이론을 실현케하는 ‘비전 라이프 스케줄러’를 제작해 참가자 전원에게 무료로 전달했으며, 이를 적극 활용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전략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실천적인 가이드를 제시했다.

샬롬 김 박사는 “성경적 관점의 ‘경영’ 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비전 실현을 사명화 함과 동시에, 사명으로 받은 일을 목표치로 세분화하고 목표치 달성을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 전략을 세우며 시간 스케줄을 정하고 실제로 실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전했다.


미주복음방송 주최로 열린 샬롬 김 박사의 ‘하나님의 경영과 시간 경영 세미나’가 지난 11월 18일(월) 성황리에 열렸다. ©기독일보

또한, 실행한 일들에 대한 평가와 적절한 보상, 휴식의 시간을 가지며, 도움을 주고받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모든 일련의 과정이 청지기로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임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사업을 하면서 성경적 경영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학문적으로 정립해 놓은 자료들이 유익했다”, “삶에 서 ‘비전’ 이란 단어를 놓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삶임을 깨달았다”, “매일의 목표와 전략, 단기와 장기의 계획 가운데 질서있게 살아가야할 책임감을 느꼈다” 등 소감을 전하며, 소속 커뮤니 티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며 심층강연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QT 노트로 활용할 뿐 아니라, 비전 목표와 함께 연간, 월간, 주간, 프로젝트별 스케줄러를 한번에 관리할 수 있는 ‘비전 라이프 스케 줄러’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시간관리의 대가 ‘프랭클린코비사’의 스케줄러보다 탁월하다는 평이 많다. 본 스케줄러를 잘 활용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저자 초청 세미나 신청도 가능하며, 책 구입과 세미나에 관한 문의는 비전멘토링인터내셔널을 통해 할 수 있다. 김민선 기자



제2차 목회자 영성 회복 기도회 “예수님을 다시 만나다”

감사선교재단, GBC 공동 주최
현역 목회자 20여 명 참가



감사선교재단(대표 김영길 목사)과 미주복음방송(GBC사장 이영선 목사)이 공동 주최한 제 2차 목회자 영성 회복 기도회가 개최됐다. ⓒ기독일보

감사선교재단(대표 김영길 목사)과 미주복음방송(GBC사장 이영선 목사)이 공동 주최한 제 2차 목회자 영성 회복 기도회가 지난 11월 11일(월)부터 13일(수)까지 2박 3일간 감사한인교회 기도원에서 개최됐다.

어려운 시기, 이민교회 목회자들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목회의 방향을 점검하며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열린 이번 기도회에는 현역 목회자 20여 명이 참가했으며, 이 가운데 다수가 1차 기도회에 참가했던 목회자들의 추천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번 기도회는 찬양 30분, 말씀 50분, 통성기도 30분으로 구성된 총 9번의 예배로 진행되었다.

예배를 9번 드리며, 9차례 설교를 전한 김영길 목사는 감사한인교회에서의 지난 목회를 돌아보며 목회의 진수와도 같은 깨달음과 교훈을 전했다. 특히 김영길 목사는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당회와 교인들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쭈고 또 여쭈며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며 그럴 때 반드시 선한 열매가 뒤따른다”고 했다. 그는 감사한인교회가 위기에 놓였을 당시, 모두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을 때 일어났던 은혜의 역사를 나누기도 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의 옷을 입고, 서로에게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 하신 것처럼 성도 간의 사랑이 정말 중요하고 그 실천으로 ‘서로를 칭찬하는 일’은 정말 선한 영향력이 있다”라며, 기도회 참가자들과 ‘서로 칭찬하기’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은혜로운 메시지에 더해 감사한인교회 성도들과 사역자들은 주방 봉사와 중보 기도로 기도회를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했다. 주방 봉사팀은 2박 3일 간 목회자들을 풍성히 대접하고 섬겼으며 중보 기도팀에서는 기도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았다.

참가자들은, 목회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선배 목회자의 깊이 있는 말씀과 연륜과 영성이 더해진 조언을 경청했으며 그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찬양과 기도에 집중했다.

2박 3일의 꽉 찬 일정과 계속되는 설교에도 지친 기색 없이 후배 목회자들을 위해 영적 양식을 다 쏟아부은 김영길 목사는 이번 기도회에 대해 “하나님을 찾는 젊은 목회자들이 있어 감사와 기대하는 마음이 크다”라고 했고, 미주복음방송 사장 이영선 목사는 “팬데믹 이후의 많은 변화와 도전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번행사를 통해 서로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위로하고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되짚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었기를 바란다. 앞으로 나아갈 올바른 방향에 대해 용기를 얻길 바란다” 고 기대를 전했다.

참가자들은 “목회의 본질을 되찾고 영성을 회복할 수 있었다” 라는 감사의 고백들을 남겼다.

김민선 기자

월드미션대 35주년 기념음악회 ‘소리의 향연’


월드미션대학교가 개교 35주년을 맞아 기념음악회를 15일 미주평안교회에서 “소리의 향연” 음악회를 개최했다. ⓒ기독일보

월드미션대학교(WMU 총장 임성진 박사)가 개교 35주년 기념음악회를 15일(금) 오후 7시 30분에 미주평안교회에서 “소리의 향연”이란 주제로 개최했다.

이번 연주회는 월드미션대학교 음악과(학과장 윤임상 교수)가 매학기 개최하는 학생음악회 연주회인 동시에 개교 축하 행사로 진행됐으며,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독특함을 가지고 소리의 향연을 펼쳤다. 먼저, 베르디 오페라 춘희(La Traviata)에 나오는 서주와 아리아, 듀엣, 모짜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중 가장 잘 알려진 피아노 협주곡(No. 23)과 “알렐루야”로 알려진 모짜르트의 모텟을 연주하며 축제의 서막을 장식했다. 두번째 무대는 대학 실용음악 교수들이 주축이 된 재즈 앙상블 그룹인 ‘Jeff Trio’가 특별 출연해,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통해 미국의 전통적인 재즈 음악의 진수를 선사했다. 또 월드미션대에 재학 중인 한인사회에 가장 대표적인 세 명의 테너들이 오페라 아리아, 칸초네를 불렀다. 대학 관계자는 “본교 음악과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한인 커뮤니티 문화예술로 섬길 수 있어 뜻 깊다. 아울러 많은 분들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나눴다.

김민선 기자

“GBC와 함께 복음을 온 세상에!”



미주복음방송이 연말을 맞아, GBC 라디오를 선물하는 ‘나눔 On 라디오 On 캠페인’ 을 진행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미주복음방송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라디오를 보급하기 위해 매해 진행되고 있고, 부담 없는 가격으로 라디오를 구입할 수 있도록 30불 상당의 라디오를 15불에 판매한다.

이번 GBC 라디오는 빈티지 감각의 세련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색감이 눈에 띄고, 더욱 아담해진 사이즈와 깨끗한 음질 면에서 업그레이드 되었다. 또한 전원 플러그를 사용해 집 안에서 듣는 것뿐 아니라, 배터리로 휴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미주복음방송의 이영선 사장은 “라디오는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수많은 컨텐츠들과 달리 ‘선별된 정보와 신뢰성’ 이라는 근간을 장점으로 하고 있다. 미주복음방송은 성경적 가치가 위협받는 이 시대에 정말 지켜야 할 소중한 방송이다. 또한 재난 시 비상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했다. GBC 라디오는 11월 25일부터 구매 가능하며, 개인은 물론 교회나 기관의 단체 주문도 가능하다. 미주복음방송을 방문해 픽업할 수 있으며 2025년 1월 15일까지 판매될 예정이다.

이윤준 기자 신청 및 문의 :미주복음방송 (714-484-1190)



아버지 밥상교회(홈리스미션)
홈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장재효,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주 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BTS SOLAR DESIGN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 전기세 50~90% 절감 ***
Lic#854389
2024년 대박
SCAN ME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텍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적용
(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고객님들께 드리는 서비스 약속
최고의 서비스
잘 훈련된 프로페셔널 팀이
최고의 제품을 사용하여 설치해 드립니다.
25 YEARS
최고의 워런티
고객님의 시스템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업계 최장 25년 워런티를 보장합니다.
최고의 제안가격
타사대비 25-40%
저렴한 가격으로 제안 드립니다.
FREE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 해 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정전에도 끄떡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들께 원가에 제공합니다.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풀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www.btssolardesign.com
BTSSolar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십시오.
1. 최신 전기빌을 준비해 주세요.
2. 전기빌 1~4 페이지를 사진 찍으신 후 문자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3. 확인 후 고객님께 별도 안내 드립니다.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Happy Thanksgiving

연휴에도 당신에게 가장 감사한
센터메디컬그룹의 마음

연말에도 센터메디컬그룹이 당신과
함께한다는 믿음

우리에게 소중한 당신이 연휴에도 행복하도록
센터메디컬그룹이 응원합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언제나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메디컬그룹 올림.



센터메디컬그룹

시니어 전문 케어 메디컬 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한강 작가 삼촌’ 한충원 목사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길”

공개편지 후에도 “조카나 형 연락은 없어”

한강 작가 소설, 어둡고 무거워 한두 페이지 후 읽고 싶지 않아
문학적 성취나 영광, 다 쓰레기 하나님의 빛과 비교할 수 없어
노벨상 천 개, 한 영혼 구원 못해
예수님 영접 전후 이야기 쓰고파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의 삼촌 한충원 목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삼촌의 편지’가 화제를 모은 가운데, 한 목사는 “예상했던 반응이다. 세상 권세 잡은 자들과의 영적 싸움이 벌어진 것”이라면서도 “글을 올린 뒤에도 형님(한강 작가 아버지인 한승원 작가)이나 조카의 연락은 없었다”고 말했다.

대전 행복이넘치는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충원 목사는 14일 오후 크리스천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페이스북에서 친구 요청이 쇄도하고, 메시지도 들어오고 있다”며 “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해 줘서 감사하다고 하고, 외국 선교사님들도 연락이 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7일 페이스북 글에서 “이 글을 인터넷에 올리자마자 수많은 사람이 나를 향해 ‘나쁜 놈’이라고 돌팔매질할 수도 있음을 익히 알고 있지만, 이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네”라며 “편지를 써야 할지 말지를 하나님께 여러 번 여쭤보기도 했네. 보름 남짓 기도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 편지를 쓰면서 몇 번이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네”라고 적은 바 있다.

그럼에도 “대의를 위하여, 나의 조국 백성들과 후손들의 영혼을 위하여 이 편지를 공개하기로 결심했네. 이 시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더욱 급속도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네. 우리나라마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동성애의 합법화가 시도되고, 영혼까지 파괴하는 성폭력이 수없이 자행되며, 이혼율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거의 1위를 차지하는 것은 통탄할 일”이라며 “문학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에 대하여 사회·윤리적 책임 의식을 갖게 하고, 우리 국민이 문학작품에 대하여 분별력을 갖도록 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도록 애쓰는 목회자로서의 사명감으로 이 편지를 공개하게 되었네. 깊이 이해하길 바라네”라고 했다.

통화에서 한충원 목사는 “제가 유명해지기 위함이 아니었다. 조카(한강 작가)의 작품이 노벨문학상을 받으니 대단하고 범접하기 어려운 것처럼 되고 있지 않느냐”며 “그런데 이건 아니지 않나. 작품도 전에 몇 권 선물받았지만, 한두 페이지를 읽고 나면 더 이상 읽고 싶지 않다. 첫 문장부터 너무 어둡고 무거워서”라고 회고했다.

이에 대해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도 “조카의 대표적인 작품들은 대부분 그 종결이 비극으로 끝나네. 작품을 읽는 내내 어둡고 답답하여 책을 덮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네”라며 “더구나 노벨문학상 작가의 작품이니 조금의 의문이나 비판도 없이 주인공의 인생을 당연한 것처럼 여길 수도 있네. 조카의 작품들은 독자들에게 허무와 절망을 심어주고 가끔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심지어 인생은 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게끔 만드는 힘이 있네”라고 우려한 바 있다.

한 목사는 통화에서 “저도 서른 살까지 (그런 삶과 글을) 겪어봤기 때문에 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빛을 만나게 돼 바뀐 것이다. 이전에는 집안 전통이 그렇다 보니 익숙해졌고, 속아서 살았던 것”이라며 “하나님을 만난 후, 그런 문학적 성취나 영광이 모두 쓰레기처럼 느껴졌다. 제가 받은 빛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페이스북 글에도 썼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집안에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된 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저를 통해 많이 인도하셨다. 제가 살 길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전해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임을 발견하고, 선교를 하고 싶었다. 그래서 2010년 침신대 야간(M.Div.)을 다니기 시작했다”며 “2014년 졸업 후, 하나님께서 급하게 쓰실 일이 있으신지 개척을 하게 하셨다. 조폭 출신 이혼 직전 가정을 보내셔서 회복시키고 새로운 가정이 되게 하시는 등 지난 10년간 목회했다”고 소개했다.

한충원 목사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할 뿐이다. 예수님 영접하기 전과 후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다.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통해 행하신 일들, 성경 사도행전과 같은 기적들이 저희 부부를 통해 많이 일어났다”며 “이번 글을 읽고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것까진 생각하지 못하고 썼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교회가 부흥되기보다는 죽어가는 영혼들, 망가진 영혼들, 깨진 가정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일들, 그런 분들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한충원 목사의 아내인 민에스더 사모도 “실제로 그 글을 읽고 어떤 어르신이 ‘나도 교회를 나가야겠다’면서 이번 주에 오겠다고 연락하신 분이 있었다. 읽어보니 너무 절절해 자신도 영혼 구원을 받아야겠다 싶어서 교회 위치를 묻는 분도 있었다”며 “자녀가 교회를 못 정하고 있는데, 이런 교회라면 추천해 주고 싶다는 분도 있는 등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한강 작가의 삼촌 한충원 목사. ⓒ페이스북

민에스더 사모는 “그 편지를 쓰게 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 믿지 않는 한강 작가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밝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글을 쓰기를 바라는 삼촌의 바람이 담겨 있다”며 “강이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에스더 사모는 “그 편지에는 없지만 목사님의 형님이자 한강 작가의 아버님이신 한승원 소설가께서 기독교에 대해 너무 배타적이었다. 그냥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며 “그래서 동생이 예수 믿는다고 엄청 핍박했고, 우상처럼 자신을 따르던 남편을 전도한 저를 너무 미워했다”고 이야기했다. 민 사모는 “시숙님 작품을 보면 기독교 비방으로 가득 차 있다. 목회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그리고, 샤머니즘 성향도 강해서 저도 죽을 만큼 힘들었다. 생명을 포기할 뻔할 정도로 영적 전쟁이 치열했다”며 “결국은 연구소 교환 교육 프로그램으로 함께 미국에 갔다가 목사님이 거듭났다”고 전했다. 끝으로 한충원 목사는 “형님이나 조카나 하늘의 빛이 비춰져서, 생명을 얻고 돌아오게 되는 게 꿈이다.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듣고 놀람과 함께 충격과 걱정이 든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며 “하나님 나라에서 노벨상이 무슨 소용 있나. 작품들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으로 빠지게 하는 내용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지난 7일 페이스북 글에서도 “그 동안에 멀리서 조카의 맨부커상 수상 소식을 들었지만,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듣자 나는 복잡한 감정에 빠졌다네. 솔직히 말해, 기쁨에 앞서 적잖은 충격과 놀라움과 걱정에 빠졌다네”라며 “노벨상 수상으로 오히려 형님 집안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더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조카의 작품에 대한 평가로 한국 사회가 두 쪽으로 갈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썼다.

특히 “사실 조카와 나의 단절도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미워하고 배척하신 형님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네”라며 “지금부터 39년 전에 2년 동안 형님과 나는, 알코올 중독에 빠져 인생이 망가져 가는 셋째형님의 치유 방법을 놓고 두 해 동안 서로 첨예하게 갈등하였네. 그러다가 셋째 형님은 돌아가셨고 그 형님의 장례식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떤 사람도, 어떠한 것(문학 포함)도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나의 주장에 분노하여 형님은 3일 동안 나를 가혹하게 핍박하셨네”라고 적었다.

통화에서 한충원 목사는 “저도 글을 쓰면서 명예를 얻고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담을 쌓고 영혼을 구하는 일만 하고 있다. 노벨상이 천 개 있어도,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다”며 “창조주 하나님만이, 예수님과 성령님만이 구원하시고 고치실 수 있다. 가족들 중 몇몇 조카들은 교회를 다니게 됐다. 형님과 가족들 모두 예수 믿길 바란다. 그 글도 그분들을 모욕 주기 위해 쓴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내도 시집을 두 권 냈다. 이 세상에선 유명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선 유명할 것이다. 그 시집을 읽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람들이 있다. 저도 그런 책이 아니면 쓰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68세인데, 하나님께서 기력을 허락하시면 갈렙처럼 앞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빛과 생명을 주는 책을 쓰고 싶다. 내년 6월쯤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나 사도행전적 이야기를 담은 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웅 기자



PEMF 와 Tera Hertz 테라헤르츠가 만나다! 테라 P-90

세계 최초의 최첨단 신기술을 이용한 30분의 기적!

무료체험하러 오세요!



자연요법, 대체 의학, 예방 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 전문가들의 추천

우주인에게 사용되는 PEMF, 생명의 빛 테라헤르츠파로 생성된 올리라이프 테라P-90
PEMF(지구자기장) + THz(빛 파장) + Earthing (땅 에너지) 가 결합된 제품

1. PEMF 전자기 펄스를 발생, 발바닥에서 온 몸으로 열에너지 전달 혈액순환촉진에 도움
2. 테라헤르츠파가 피부에 침투하여 인체의 미세순환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도움
3. 땅에 어씽한 것처럼 전자를 유입하여 활성산소를 중화하는데 도움을 줌

PEMF란?

지구자기장으로 NASA에서 우주인의 건강을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기도 합니다.
우주에서 장기간 머무는 비행사들은 지구자기장의 영향권 밖에 있기 때문에 뼈와 근육의 손실이 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주비행사들의 회복을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10여년 전만해도 지구로 귀환하는 우주비행사들은 90일간 PEMF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주에서 머무는 동안 근육손실과 뼈의 약화 등에서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PEMF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테라P-90의 의미도 최소한 90일간의 PEMF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테라 P-90을 30분 사용시 얻을 수 있는 동일한 성과

- 2시간 운동 성과 (근육활성)
- 뜸 10회 (체온상승)
- 부황 20회 (혈액순환)
- 마사지 30회
- 훈욕 1시간
- 피부 스켈링 60회 (리프팅)

테라 P90의 효과

- 세포에너지 생성에 도움
- 혈액순환과 산소공급에 도움
- 신진대사에 도움
- 독소배출(림프)에 도움
- 수면장애에 도움
- 통증과 염증에 도움
- 면역건강 보조
- 뇌건강과 인지능력 증가에 도움
- 우울증/스트레스에 도움
- 지방연소에 도움
- 피로에 도움
- 안티 에이징에 도움
- 시력향상에 도움
- 폐와 신장기능강화에 도움

FDA, SGS, OPMS, ISO 세계적으로 특허 및 승인 받은 제품 158개국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제품 하나의 디바이스로 온가족이 함께!

테라헤르츠와 PEMF의 시너지, 최첨단 건강 혁신! 두 가지 혁신 기술의 만남으로 완벽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세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체험수기

"저는 한의사로서 다양한 치료법을 경험해왔습니다. 테라 P-90를 사용해본 결과, 정말 놀라운 효과를 느꼈습니다. 이 기기는 깊은 조직까지 침투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빠른 회복을 지원합니다. 특히 관절염 환자들에게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테라 P-90는 비침습적이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환자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 Y*** 한의사

"정형외과에서 테라 P-90를 도입한 이후,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수술 후 회복과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전자기장이 깊은 조직에 작용하여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며, 치료 효과를 빠르게 증진시킵니다. 실제로 환자들이 치료 후 더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면서, 테라 P-90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 J****** 정형외과 의사

"테라 P-90는 물리치료에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빠른 회복을 지원합니다. 제 환자들이 테라 P-90를 사용한 후, 통증이 줄어들고 운동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치료 세션에 테라 P-90를 포함시키는 것은 환자들의 재활 과정을 크게 개선시키는 방법입니다." - M** 물리치료사

"피부과에서 테라 P-90를 사용하여 염증성 피부 질환과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자기장이 피부 깊숙이 작용하여 염증을 완화하고 세포 재생을 촉진시킵니다 환자들의 피부 상태가 개선되고, 치료 후 회복 속도가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부 건강을 위한 혁신적인 치료 도구로 테라 P-90를 추천합니다." - L** 피부과 의사

grace.olylifeglobal.com 웹사이트 주문 후 2주 후 물건도착

문의 213-434-1170 무료체험 (오시기전 예약필수 월~목 : 오전 11시 ~ 오후 2시)

3055 Wilshirte Blvd #480 ., LA, CA 90010

* 건강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건강과 비지니스 기회를 원하시면 지금 연락주십시오.

미주 기독일보 후원

한국 혜민병원

VIP종합검진 초특가 이벤트

"한국 방문 한번으로
보고 싶은 가족과 친구도 만나고 건강도 잡으세요"

365일 24시간 전문의가 진료하는 서울동부지역 으뜸병원, 혜민병원

혜민병원은 우수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함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여
보다 큰 행복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검진내용

- 뇌 MRI / 수면 대장내시경 — 중 선택
- 수면 위내시경
- CT 촬영 (뇌, 폐 선택)
- 종양표지자 검사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 갑상선 검사. T3, T4, TSH
  (갑상선 항진, 저하)
- 방사선 촬영(유방, 흉부)
- 골밀도
- 간기능, 콜레스테롤, 심장질환 등
  혈액검사 및 기본검사
- 산부인과 질 초음파
  전립선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복부(간장, 비장, 췌장, 담낭, 신장)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검진비용

~~$950~~ **$440** (환율변동)

$100불 할인예약증

$340불 검사당일 납부

쿠폰발행일로부터 3년 유효기간
(양도 양수가능)



종합건진센터 이성수 소장

새 생각, 새 의술
혜민병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85 지하철 2호선 구의역 하차 4번 출구방향 으로 직진 신호등 건너 150m 도보

문의전화 T.(213)341-5123

브라질성서공회, 성경 2억 부 인쇄... 87개 언어 122개국 수출



ⓒ브라질성서공회.

브라질성서공회(SBB)가 성경 2억 부 인쇄라는 역사적인 성과를 달성했다고 14일 발표했다.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최근 "SBB는 지난 2011년 첫 1억 부 인쇄를 기념한 바 있다. 그로부터 10여 년 만에 그 2배인 2억 부에 이르렀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SBB는 성경 번역, 인쇄, 배포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UBS)에 소속돼 있다.

이에 따르면, SBB의 역사는 다양한 성경 번역본의 풍부한 역사를 보여 준다. 지금까지 87개 언어로 제작된 성경이 122개국에 수출됐으며, 이 작업에는 공부용 성경, 주제별 성경, 이중언어 및 다중언어 성경뿐만 아니라 점자 성경과 원주민 언어 성경도 포함된다. CDI는 "2023년 전 세계적으로 1억 5,200만 부의 성경이 배포됐으며, 그 중 브라질이 3,200만 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며 "SBB는 라틴아메리카 전역에 성경을 공급하는 주요 인쇄업체 중 하나로, 성경과 신약만을 전적으로 제작하는 유일한 인쇄 회사이며, 특히 초당 3권의 완전한 성경을 인쇄하고 있다"고 전했다.

2억 부 중 70%인 약 1억 4천만 부는 브라질 내에서 사용됐고, 나머지 30%인 약 6천만 부는 해외로 수출됐다. SBB 관계자는 "한 권의 성경이 한 사람에게만 전달된다고 해도 2억 명에게 다가갈 것이다. 그러나 보통 한 권의 성경을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누어 읽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훨씬 더 크다"라고 했다.

SBB는 '성경: 화해의 기준 - 가정과 사회에서의 화해'라는 주제를 강조하며, 갈등의 시기에 평화와 이해를 촉진하는 성경의 핵심적 역할을 알리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난 2022년 SBB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위로와 희망을 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어 신약성경 10만 부를 전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CDI는 "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SBB의 헌신을 보여 준다"고 전했다. SBB는 지난 7일 이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감사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인터리니어 성경을 발간했다. 이 성경에는 뉴킹제임스버전, 새 번역본, 슈투트가르트 히브리 성경, 그리스 신약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브라질 독자들은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 원문에 접근해 더욱 깊이 있는 성경 연구가 가능해졌다.

SBB는 성경이 각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영적·문화적·사회적 발전을 촉진하는 도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SBB는 매년 40만 건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어린이, 수감자, 입원 환자, 장애인, 중독 문제를 겪는 사람들 등 약 35만 명을 지원하고 있다.

강혜진 기자

캐나다 복음주의협의회, 음란물 플랫폼 규제 강화 촉구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캐나다 복음주의 협의회(EFC)가 음란물 플랫폼의 나이 및 동의 확인 부재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며, 아동 성적 학대와 비동의 콘텐츠의 온라인 확산을 막기 위한 법적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고 13일 보도했다.

CDI는 EFC가 지난 10월 31일 캐나다 의회의 법무 및 인권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Bill C-270(형법 개정안: 음란물 관련);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보수당 소속 아널드 비어센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그는 인신매매 피해자 및 아동 권리 보호 활동으로 알려져 있다.

EFC는 성명에서 "음란물 플랫폼이 아동 성적 학대 자료와 비동의 이미지를 사이트에 게시하지 못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많은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이를 시행하지 않는 현실에서 법적 요구와 책임 부과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FC는 온라인에 게시된 성적 콘텐츠가 피해자들에게 "파괴적이며 평생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이 겪는 피해는 "심각하고 광범위하다"고 강조하며,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피해 사례: "삶을 파괴하는 온라인 이미지"

CDI는 2021년 캐나다 의회 윤리 위원회가 'Pornhub'과 같은 플랫폼에서 발생한 피해를 조사했을 당시, 피해자들은 자신의 이미지가 동의 없이 게시된 경험을 증언했다고 밝혔다. 일부 피해자는 촬영 당시 나이가 13세에 불과했다.

EFC는 보고서에서 7학년(13~14세) 학생이 찍힌 영상이 음란물 사이트에 업로드되어 수백만 회 조회된 사례를 인용하며 "이 피해자는 학교를 중퇴하고 노숙자가 되었으며, 불안과 자살 충동에 시달렸다"고 설명했다. EFC는 보고서에서 "또 다른 사례에서는 피해자의 파트너가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게시해 정서적 외상과 자살 충동, 건강 문제, 직업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음란물 플랫폼에서 성폭행이 하나의 장르로 소비되는 문제도 언급했다. 한 피해자는 자신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촬영된 영상이 "수면제"라는 태그와 함께 'Pornhub'에 게시되었으며, 수천 명이 이를 검색해 시청했다고 증언했다.

AI 활용한 착취 및 콘텐츠 삭제 문제

EFC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미지 조작이 성인 및 아동의 성적 착취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 피해자는 자신의 친밀한 이미지 700장이 80개 이상의 웹사이트에 퍼져 직업, 사회적 관계,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플랫폼이 피해자의 삭제 요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삭제 속도가 느려, 한 번 게시된 이미지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EFC는 지적했다.

EFC는 "책임은 피해자가 아닌 기업에 있다. 음란물 플랫폼은 콘텐츠가 처음부터 업로드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한 기업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 촉구

CDI는 EFC가 'Bill C-270'이 플랫폼에 명확한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이라며 상임위원회의 지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FC는 "Bill C-270이 불법 콘텐츠가 처음부터 업로드되지 못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위원회가 이 법안을 지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승연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장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00 (차세대예배 오전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새벽예배 (월)온라인 Only 오전 6시
(화~토) - 오전 6:00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lde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0:50 토요비젼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c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1 비전센터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OMC 중고등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MC소망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본당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수요중보기도회 오전 10:00 본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영어) 오전 10: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 3부예배(대예배) 오전11: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중보기도회 오후 2:00
김재연 담임목사
영생교회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2-735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서울 AM 1560
주일 아침 6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전 1:00
라티노 오후 5:00
GCEM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본당/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10:50
한국학교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토요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한현종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유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E.M(대.청) 오후 1: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30 (토)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일 오전 10:00 하톤교회
4500 W. El Segundo Hawthorne, CA 90250
Tel. 310-706-7721
주일 오후 1:00 가든그로브한인교회
13411 S. Euclid St. Garden Grove, CA 92843
주일 오후 7:00 웨스턴교회
439 S. Western Ave, LA, CA 90020
진건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황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주일예배 오후 1:00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찬양집회 7:30pm
주일3부예배 11:00a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정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rc.org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밸가든구국재단 :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 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금)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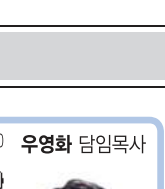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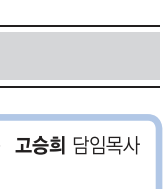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 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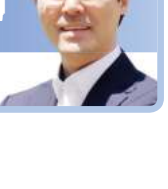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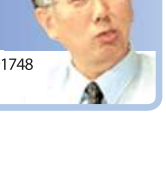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금)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청장년/교육부서) (토/주일)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는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9:40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금)
우영화 담임목사

LA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2023년 유럽 전역에서 반기독교 증오 범죄 2천4백 건 이상 발생"



ⓒ Unsplash/Daniel Polevoy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 35개국에서 2천4백44건의 반기독교적 증오 범죄가 발생했으며 영국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건은 교회에 대한 파괴 행위(62%)였고 그 다음으로는 기독교 성지 모독(24%), 방화(10%), 위협(8%), 신체적 폭력(7%)이 뒤따랐다. '유럽 기독교인에 대한 불관용과 차별 감시 단체'(OIDAC)가 발표한 보고서는 스페인에서 신부가 사망한 칼부림 공격, 폴란드에서 성체 성혈 대축일 행렬을 들이받는 차량 공격, 영국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을 살해하려 한 사건 등을 강조했다. 영국은 2023년 7백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해 두 번째로 많았으며, 지난해 약 1천건이 기록된 프랑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보고서는 일부 유럽 국가의 직장과 공공 생활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차별이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러한 추세가 유럽 기독교인 사이에서 자기 검열이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이 보고서는 영국의 '정의를 위한 목소리'(Voice for Justice)가 2024년 실시한 연구 결과를 인용했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영국에서 35세 미만의 기독교인 중 3분의 1(36%)만이 직장에서 사회 문제에 대해 기독교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OIDAC는 낙태 클리닉 완충 지대에서 침묵기도한 혐의로 영국 친생명 옹호자 아담 스미스-코너와 이사벨 본-스프루스를 기소한 사건은 특히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OIDAC 유럽 대표인 안자 호프만은 조사 결과에 대해 "특히 전통적인 종교적 신념을 고수하는 기독교인들은 직장에서의 괴롭힘부터 실직까지 다양한 차별과 적대감에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예를 들어 결혼과 가족에 관한 문제에서와 같이 개인적인 종교적 신념을 평화롭게 표현하는 것이 정치적 경력이나 직업의 잠재적 종말, 심지어 법정 소송의 시작이 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독일은 프랑스와 영국에 이어 3위를 차지했는데, 2022년 135건에서 작년 277건으로 105%나 증가했다. 이 보고서는 2023년 유럽 정부가 유럽 안보 협력 기구(OSCE)에 보고한 데이터와 시민 사회가 보고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호프만은 프랑스를 포함한 여러 국가가 지난해 OSCE에 통계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반기독교적 증오 범죄의 숫자는 훨씬 더 많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OSCE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차별 퇴치 대표인 레지나 폴락 교수는 "기독교에 대한 증오 범죄는 피해자와 그 지역 사회, 그리고 사회 전체에 배제의 메시지를 보낸다"면서 "우리는 유럽에서도 기독교인을 향한 차별과 증오 범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미경 기자

미식축구 선수 "예수님 사랑 전하는 것이 내 목적"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제이크 베이츠 선수. ⓒYouTube/NFL on NBC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루키 키커 제이크 베이츠 선수가 최근 풋볼 경기에서 휴스턴 텍사스 팀을 상대로 52야드의 게임 우승 필드골을 성공시키며 팀을 극적인 승리로 이끌며 경기 후 NBC와의 인터뷰에서 베이츠는 자신의 선수로서의 목적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14일 보도했다.

CP는 라이온스가 26-23의 마지막 순간 승리를 거둔 후, 베이츠 선수는 "벽돌 판매원"에서 풋볼을 떠난 줄 알았던 자신이 전국 방송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은 심정을 묻는 질문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하심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베이츠 선수는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시다. 제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필드골을 넣거나 실패하거나, 훌륭한 키커가 되거나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주어진 무대에서 그것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과거에도 하나님께 감사한 순간들

CP는 이날 승리의 순간은 베이츠 선수가 운동 경기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한 첫 사례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몇 주전 팀이 미네소타 바이킹스를 상대로 승리한 후에도 그는 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전 아칸소 대학교 키커였던 베이츠 선수는 "하나님께서 제게 기대 이상의 많은 것을 제공해 주셨다"라며 자신의 성공을 하나님께 돌렸다.

그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경기장에서 스트레스가 많은 순간에도 자신을 차분하게 유지하도록 돕는다"며 "히브리서 12장 1절은 제가 차분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이라고 덧붙였다.

벽돌 판매원에서 NFL로의 복귀

베이츠 선수는 18개월 전 풋볼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회상하며 "저의 꿈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당시 저는 휴스턴에서 벽돌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풋볼로 복귀할 수 있던 것은 '주님의 선하심'이라고 증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벽돌을 팔면서도 훈련을 계속하고 있었고, 삶을 정리하려 노력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주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고 전했다.

소셜 미디어와 신앙 고백

CP는 베이츠 선수의 X(구 트위터) 계정에는 그의 신앙이 뚜렷이 드러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소개 글에 "믿는 자(Believer)"라는 단어를 가장 앞에 두며, 그 뒤에 텍사스 출신 및 학력 정보를 덧붙였다.

그의 계정에 고정된 2019년 1월의 게시물은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제시간에 이루어진다"는 문구와 #인내(#patience)라는 해시태그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5월 2일 게시물에서는 팔로워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권하며, 5월 29일 게시물에서는 "운전자를 모르면서도 버스에서 편히 쉴 수 있고, 조종사를 모르면서도 비행기에서 편히 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알면서 왜 삶에서 편히 쉴 수 없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최승연 기자

“美 성경참여 기독교인, 성경 비참여자보다 외로움 수준 낮아”



ⓒ Unsplash/Aaron Burden

영적으로 강하고 용서하는 미국인들이 성경이나 교회 참여도가 낮고 타인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외로움을 덜 느낀다는 새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국성서협회(ABS)는 ‘외로움’에 초점을 맞춘 ‘미국성서현황 2024’(State of the Bible USA 2024) 보고서 중 여덟번째 챕터를 발표했다.

지난 1월 4일부터 23일 간 미국 성인 2천5백6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응답을 바탕으로 한 이 연구는 응답자의 종교성 수준과 외로움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지 간 관계를 조사했다. 표본의 오차 한계는 ±2.73퍼센트 포인트다.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인 4명 중 3명이 중간 수준에서 높은 수준의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8~27세 Z세대 여성 중 3분의 1 이상이 심각한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다. 보고서는 “조사에서 미국인들이 성경을 참여하면서 많은 혜택을 얻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외로움을 덜 느끼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가설을 시험하고 있다”라며 “만약 실제로 ‘외로움의 전염병’을 겪고 있다면,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물었다.

‘성경에 무관심한 응답자’는 성경 참여 척도에서 70점 미만을 받은 이들로 정의된다. 이 척도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성경의 영향과 중심성을 일련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통해 측정했다. 그 결과 22%는 심각한 외로움을 느꼈고 52%는 중간 정도의 외로움을 느꼈다.

‘이동 가능 중간 계층’ 중 성경 참여 척도에서 70점에서 99점 사이의 점수를 받은 응답자 중 59%가 높은 수준의 외로움을 느꼈고 17%는 중간 수준의 외로움을 경험했다.

성경 참여 점수가 100점 이상인 ‘성경 참여’ 응답자 중 상당히 적은 비중이 외로움 수준이 높다고 보고했으며(11%). 외로움 수준이 보통 수준(50%)이라고 답했다. ‘성경 참여’ 응답자 중 외로움 수준이 낮다고 보고한 비율(38%)은 ‘이동 가능한 중간 계층’과 ‘성경 비참여’ 응답자 중에서 외로움 수준이 낮다고 보고한 비율(25%)보다 훨씬 높았다. 이 연구는 UCLA 외로움 척도에서 5가지 질문을 채택해 특정 감정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지를 물었다. 응답자가 감정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경우 ‘1점’을, 자주 경험한 경우 ‘4점’를 부여했다. UCLA 외로움 척도에서 가능한 최대 점수는 20점이고 최소 점수는 5점이었다.

조사 대상인 4세대 중 3세대에서 성경에 집중한 세대는 ‘중간 이동 계층’과 ‘성경 비참여’ 범주에 속한 세대보다 평균적인 외로움 점수가 낮았다.

1997년 이후 태어난 미국 성인 중 가장 어린 세대인 Z세대의 경우, ‘성경 참여자’의 평균 외로움 점수는 11.3점으로, 같은 연령대의 ‘중간 이동 계층’(12.4)과 ‘성경 비참여자’(13.4) 평균 점수보다 낮았다. 1981년에서 1996년 사이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다. ‘성경 참여자’는 평균 외로움 점수가 10.1이었고, ‘중간 이동 계층’은 평균 외로움 점수가 12.3이었고, ‘성경 비참여자’는 평균 외로움 점수가 13.0이었다.

1965년에서 1980년 사이 태어난 X세대의 경우, ‘성경 참여자’ 계층은 평균 외로움 점수가 11.1로 측정되었고, ‘중간 이동 계층’과 ‘성경 비참여자’는 모두 12.3으로 측정됐다.

1964년 또는 그 이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와 노년 세대 중에서만 ‘성경 비참여자’의 평균 외로움 점수(10.5)가 ‘성경 참여자’(10.6)보다 낮았다. 가장 나이 많은 미국 성인 그룹 중에서 ‘중간 이동 계층’이 평균 외로움 점수(11.4)가 가장 높았다.

보고서는 “이 정보는 기독교 사역에 관련된 모든 사람, 실제로 청년 성인을 돌보는 모든 기독교인에게 의제를 설정한다”라며 “Z세대 여성 중 3분의 1 이상이 매우 외롭다고 말한다. 그들은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만 ‘함께’ 있지 않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종종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 분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 우리 주변의 외로운 이들에게 가족이 되도록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교회 참석에 따른 외로움 수준을 살펴보면, 교회에 전혀 출석하지 않는 응답자가 외로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25%). 그 다음으로는 한 달 이상 교회를 출석하지 않았지만 지난 1년 이내 출석한 응답자(20%), 마지막으로 교회를 출석한 지 1년이 넘은 응답자(16%), 마지막으로 교회를 출석한지 한 달 이내인 응답자(15%), 매주 교회를 출석하는 응답자(12%) 순이었다.

반대로, 매주 교회를 출석하는 이들은 낮은 외로움 수준(33%)을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지난 한 달 이내 교회를 출석한 응답자(32%), 최소 1년 동안 교회를 출석하지 않은 응답자(26%), 전혀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응답자(24%) 순이었다. 이 연구는 또한 개인의 용서 능력과 외로움 수준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용서할 수 없다’고 답한 응답자 중 36%는 높은 외로움을 경험했고, 중간 수준의 외로움을 보고한 응답자가 43%, 낮은 수준의 외로움을 보고한 응답자가 21%였다. ‘어느 정도 용서할 수 없다’고 답한 응답자 중 22%는 높은 수준의 외로움을 보고했고, 57%는 중간 수준의 외로움을 경험했고, 21%는 낮은 수준의 외로움을 보고했다. ‘어느 정도 용서할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16%는 높은 수준의 외로움을 보고했고, 56%는 중간 수준의 외로움을 경험했고 28%는 낮은 수준의 외로움을 느꼈다고 보고했다. ‘강력하게 용서할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높은 수준의 외로움을 보고한 비율이 가장 낮았고(16%) 낮은 수준의 외로움을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35%) 나머지는 중간 수준의 외로움을 경험했다.

ABS 최고 혁신 책임자인 존 파쿠하르 플레이크는 “일부 전문가들은 소셜 미디어가 깊은 우정을 대체하는 얕은 관계를 조장한다고 비난한다. 저희 연구에 따르면 용서하지 않는 것은 외로움 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다”라며 “원인에 관계없이, 그 필요성은 시급하다. 교회는 신중함과 창의성으로 대응하여 의미 있는 기독교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비기독교인 중 “현재 기독교인이 되는 것의 의미를 탐구하는 데 관심이 없다”는 응답자 중 26%는 낮은 수준의 외로움을 보고했고, 22%는 높은 수준의 외로움을 경험했다. 높은 수준의 외로움을 응답한 비율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의 의미를 탐구하기 시작한 비기독교인 중 42%로 측정되었고, 낮은 수준의 외로움 비율은 10%로 측정됐다.

이미경 기자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철야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 예배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6th ~ 12th) 11:00 AM
아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아부 (24개월 이하) 11: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오후 12:30
주일 2부 오후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EM 오후 12: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사랑부 오전 11: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아가페홀) 오전11: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어부예배(믿음채플)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모임(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3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예배 2부 9:30AM 수요기도회 7:30PM
주일예배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대학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안정섭 담임목사
예수동행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ilovejcc.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어노인팅예배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밸리채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영어예배 오후 1:30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818)363-5887
OC채플
수요영성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ZOOM)
680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Newhall, CA 913211
Tel. (661)219-5434 www.sammool.org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예배 오후 7:00
토요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11:00
수요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11:30 새벽예배(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3225 S Rainbow Blvd #200, Las Vegas, NV 89146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10:15 (한국어, 스패니쉬)
주일예배 3부 오후12:15 (한국어,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오전11:00
수요말씀기도회 오후 7:00
토요새벽예배 오전 7:00 E. lvkc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주일예배 1부 오전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EM예배 주일 오후 1: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화-토) 새벽 5:30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11:00
정공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6827 W Tropicana Ave #130, Las Vegas, NV 89103
T. (702) 742-3324 / thinkhappychurch.org

주일낮예배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주일저녁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6: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이병걸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제일침례교회
2625 Westwind Rd, Las Vegas, NV 89146
T. (702) 331-5026

주일 예배 오전 11:00 (영어 동시통역)
화요중보기도 오전 10:00
수요 예배 오후 7: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박은호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은혜와 사랑의 교회
2580 Montessouri St. #107, Las Vegas, NV 89117
T. (702) 539-6348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좋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 woorijoeunchurch.com

크리스천 비지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 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바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각종모임 주문환영(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찹쌀 오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NATURE'S TREASURE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선물로 딱이네~
기억력 개선
피로 회복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항산화 작용
5 목 넘김이 쉬운
비타민 D3 5,000 IU
120 베지터블 캡슐 $8.80
D3 5,000 IU 선사인! 비타민! 햇빛을 보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D 결핍을 보충해 줍니다.
6
비타민 C500
180 베지터블 캡슐 $11.99
당신의 건강과 뷰티를 위한 필수 영양소! 필수영양소 비타민C와 칼슘,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가진 로즈힙까지 함유된 제품입니다.
9
면역력
120 타블렛 $11.99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로즈힙을 사용하여 제조된 강력한 면역력 개선 제품입니다. 신체 면역체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 줌으로써 면역력을 기본부터 끌어올려 줍니다.
전화구매
213-434-1170

사모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기억해야


유혜연 선교사가 사모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본지가 주최한 미자립교회를 위한 제3회 위 브릿지 컨퍼런스가 지난 10일(주일)부터 12일(화)까지 아름다운교회 기도원에서 개최됐다. 행사 둘째날에는 특별히 목회자 특강과 사모특강이 진행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날 사모특강은 부부/가족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풍성한 삶 연구소 유혜연 선교사가 인도했다. 다음은 유혜연 선교사의 사모특강의 내용이다.

1982년에 이민을 와서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다녔다. 그 후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고, 당시 남편은 전도사였다. 22살에 사모가 되어 부교육자로 12년 동안 사역하며, 그 후에는 중국으로 선교지로 떠나 9년 동안 거주하였다. 중국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변동 되었고, 그 뒤에는 잠시 미국에 돌아와 7년 동안 거주하면서 중국과 미국을 오가며 선교 사역을 계속했다. 당시 시부모님이 90세가 되시고, 중국에서의 환경이 어려워져 미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 후, 2013년에는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1988년부터 이민교회에서 사역을 하며 영어권 사역도 맡았고, 이민 2세들과 함께 성장하면서 한국인과 미국인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나는 한국인이고 미국인인 그 사이에서의 정체성의 혼란을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에 대해 확신하게 됐다.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모든 정체성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며, 자신이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 여자로 태어난 것, 그리고 다양한 상황과 역할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떻게 태어날지, 어떤 역할을 맡을 지를 계획하셨다.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여성으로 태어난 것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사모로서의 정체성도 마찬가지다. 사모가 된 것은 선택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정체성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잘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소명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모라는 정체성은 대부분의 경우 선택하지 않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이다. 이러한 사모의 정체성은 단순한 역할이 아니라, 그 안에 깊은 소명이 담겨 있고,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모라는 직책이 단순히 외적인 기능에 국한되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이 부여한 존재적인 의미가 있다.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역할에 대한 순응이 중요하다는 점으로 이어진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에 대해 의심하거나 불만을 가지면, 그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여자로 태어난 것,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 사모로 살아가는 것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기초가 된다.

사모는 특별히 여성의 역할이자,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함께 사역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이 역할이 과도한 부담이나 사회적 기대 속에서 지나치게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사모라는 직책이 너무 많은 책임과 기대를 내포하고 있어서, 그것에 의해 자아가 눌리거나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교회 안에서 사모는 중요한 역할을 맡지만, 그 정체성을 자아가 아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사모라는 호칭은 때때로 그 사람의 기능과 직책을 넘어서는 부담을 줄 수 있다. 사모로서의 역할이 과도하게 강조되면, 그것이 개인의 삶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부담을 스스로 잘 정리하고,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정체성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부부의 관계와 그 안에서의 결속력이다. 사모의 역할은 중요한 만큼, 부부의 관계에서의 역할도 중요하다. 부부가 서로를 잘 지키고, 서로의 소명과 역할을 잘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와 가정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핵심이다. 사모로서의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부부로서의 결속력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자기 돌봄의 중요하다. 자신을 잘 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잘 돌볼 수 없다. 사모라는 직책을 맡고, 교회와 가정을 섬기느라 바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돌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에너지를 잘 비축하고, 자기 자신을 돌보면서 사역을 할 때, 더욱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사모로서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점을 기억하며,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한다.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고, 그 뜻에 맞춰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김민선 기자

Friend Fine ART 전시회 열려


FFA 전시회에서 작가 및 방문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5년 동안 전시회를 꾸준히 하고 있는 FFA(Friend Fine ART)는 한인 사회에서는 오랜 역사를 가진 단체이다. 제시카 이 회장을 중심으로 FFA 회원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부에나팍 교회에서 제공한 장소에서 그림을 그려왔다. FFA는 그림을 사랑하는 수준급으로 그림을 그리는 회원들의 작품을 모아 1년에 한번씩 전시회를 한다. 이번에 부에나팍교회(김성남 담임목사)에서 11월 15일부터 1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시회를 열었다. 30여명의 회원들의 다양한 수준급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부에나팍 교회의 담임목사님과 성도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전시회를 마치게 되었다. '너무도 잘 그린 작품들을 보고 뿌듯함을 감출수 없다. 회원분들이 자랑스럽다. 그리고 수고해 주신 교회분들과 스텝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제시카 이 회장은 말했다. FFA는 내년 4월달에 부에나팍 시티오프 놀웍 Mary Paxon Art Gallery에서 전시회를 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이 더 와서 함께 그림을 그리고 전시회를 하면 좋겠다'고 크리스 문씨는 말했다. 내년 2월부터 매주 1회씩 모여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자세한 문의는 회장 제시카 이에게 하면 된다. 전화 714-380-8889

이윤준 기자



[사설] WEA 서울총회, '결자해지' 할 시점이다

내년 WEA 서울총회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가 지난 15일 출범했다. WEA 서울총회는 종교다원주의·혼합주의 논란의 중심에 있는 WEA 지도부가 극비리에 사랑의교회에 호스트를 맡아줄 것을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WEA 지도부를 향한 한국 교계의 비판 여론이 심상치 않아 내년 총회까지 순항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이날 조직위 출범식은 내년 10월로 예정된 WEA 서울총회 개최 사실을 처음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WEA 현 지도부에 대해 교계에 널리 퍼진 여러 소문과 의혹을 진화하려는 데 비중이 더 커보였다. WEA 서울총회 유치를 사실상 주도해 온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는 이 자리에서 "서구교회에 빚을 진 한국교회가 앞으로 100년간 서구교회에 빚을 갚아야할 때"라며 WEA 서울총회가 마치 그 빚을 갚는 일환인양 의미를 부여했다.

그런데 이날 조직위 출범식은 이전에 WEA 총회를 개최한 다른 나라들에선 볼 수 없었던 장면이 눈에 띄었다. 우선 서울총회 개최를 처음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리에 WEA 의장과 사무총장 등 기구를 대표하는 인사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슈마허 사무총장은 종교다원주의 논란으로 최근 사퇴해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사무총장직을 겸직하고 있는 국제이사회 굿윌 샤나 의장도 참석치 않아 호스트만의 잔치로 비쳐졌다.

이날 출범식은 사실 느닷없고 뜬금없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WEA 샤나 의장의 '신사도운동' 논란과 슈마허 사무총장의 종교다원주의 행적 등 지도부의 잇단 일탈 행동으로 한국교회의 불신을 사고 있는 WEA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변화 노력이나 해명 한마디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서울의 대형교회와 손잡고 총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선의로 해석하기엔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한둘이 아니다.

지난 9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4차 로잔대회는 비정기적인 국제행사지만 복음주의권을 대표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였다. 그런데 끝나자마자 내년에 WEA 총회를 한국에서 열겠다는 의도부터가 석연치 않다. 출범식에서 김상복 목사(할렐루야교회 원로)는 기자의 질문에 "한국교회는 WEA 안에 오피셜 멤버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총회 개최를) 한국교회가 모여서 결정한 게 아니라 WEA가 요청해 호스트 역할을 맡기로 한 것"이라고 내막을 밝혔다.

여기서 드는 의구심은 누가 사랑의교회에 호스트를 부탁했고, 그 부탁을 한 사람이 WEA 총회 개최지 결정의 전권을 쥔 인물인가 하는 점이다. 취재에 의하면 WEA 전 사무총장인 에프라임 텐데로와 최근 사무총장직을 사임한 토마스 슈마허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줄기차게 방한해 처음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에게 의사 타진을 했다가 거절당하자 사랑의교회를 찾아가 오정현 목사를 만나 같은 요청을 했고, 이를 오 목사가 수락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해 초대형교회를 찾아다니며 총회 개최에 따른 재정지원과 장소 제공을 요청한 두 사람은 WEA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공통점을 가진 인물이다. 두 사람 다 로마 교황청을 방문해 교황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등 복음주의연맹의 책임자로서 해선 안 될 일탈 행위를 한 전력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초대형교회를 찾아다니며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려한 저의가 무엇이든 간에 두 사람 다 총회 개최지 결정의 전권을 쥐기엔 매우 심각한 결격사유를 지녔다는 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일탈 행위가 반복되면서 WEA가 오늘날 WCC와 동격으로 취급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건데 이런 문제에 대해 한국교회 내에서 공개적인 논의 한번 없이 덜컥 호스트를 자임하고 나선 것도 도의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수긍이 안 되는 부분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직위 신학분과위원 김재성 박사는 WEA의 현 리더십에 대해 우려하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 국제이사회 굿윌 샤나 의장의 '신사도운동' 의혹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한 게 바로 그 부분이다. 김 박사는 WEA 전 사무총장 슈마허에 대해선 "WCC인지 WEA인지 모를 정도로 문서를 많이 발표하고 활동하고 다녔다. 그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이 의심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의 말대로라면 WEA 현 지도부는 복음적 노선에서 이탈해 한국교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WEA 지도부가 이처럼 심각한 중병에 걸린 사실을 몰랐다는 것인가. 만약 인지하고도 이들을 만나 내년 서울총회 개최를 약속하고 공식 출범식까지 열었다면 이를 단순히 무모한 결정이라고 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WEA는 일부 리더십의 종교다원주의·혼합주의 논란과 친 가톨릭·이슬람에 경도된 일탈 행위로 한국교회로부터 우려를 사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복음주의 신앙노선을 표방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기고문

홈리스에게 더욱 관심가져야 할 때

감사의 계절,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날이 추워지면 홈리스 형제들의 겨울나기가 더욱 걱정됩니다. 차가운 바람, 배고픔, 그리고 비 오는 겨울은 이들의 마음을 더없이 쓸쓸하고 괴롭게 만듭니다.

미국에 온 후, 하나님께서 홈리스 사역으로 인도하셔서 지난 20년간 이 사역에 헌신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홈리스 형제들을 제 집으로 데려와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좁은 공간 탓에 깡통 벤을 마련해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오늘날 LA, 빅토빌, 바스토에 있는 세 개의 센터로 확장되었고, 이제는 이곳에서 홈리스 형제들과 가족이 되어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역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매일 감사와 보람을 느끼며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한 이유는 그들이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보다, 그들이 겪는 고통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잠잘 곳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그들이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약과 알코올 중독의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홈리스의 90% 이상이 마약에 중독되어 있으며, 정신적인 문제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LA 시와 정부가 많은 예산과 정책을 통해 홈리스를 돕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홈리스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풀어야 할 난제입니다.

그러나 해답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홈리스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많은 인내와 헌신의 시간이 흐른 뒤,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버린 홈리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를 직접 목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이 형제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이들에게 자부심과 희망을 심어주셨고, 약함을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8년 동안 마약에 중독되어 텐트에서 생활하며 감옥을 들락거리던 나사로 형제는 이제 신학교에 다니며 전도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밥상교회'에서 그 형제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새벽 2시에 일어나 다른 홈리스들을 섬기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사로 전도사는 20명이 넘는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며 그들의 영적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홈리스 사역을 통해 맺어진 열매는 풍성하고도 감사로 가득합니다. 마약과 홈리스의 고통을 이기게 하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역이 힘들지 않냐고 묻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힘들지 않습니다. 긴 시간 어렵고 고단한 여정이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제는 홈리스 형제들이 제 친구이자 가족이 되었고, 날마다 저에게 기쁨과 소망을 안겨줍니다.

세상은 홈리스를 버리고 멸시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을 씻기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너희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은 오늘도 제 마음을 깊이 울립니다. 아멘.

(바스토 센터에서, 무디 목사)



2024 미주기독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인터넷 홈페이지 www.mbts.edu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 ks@mbts.edu

CPU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대학교 CALIFORNIA PRESTIGE UNIVERSITY
(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온캠퍼스과 온라인 동시 프로그램
(562) 926-1023, ext. 300 www.ptsa.edu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 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is.org
학교주소 | 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 aurahelio@gmail.com
전화 |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www.itsla.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ACTION CAMP에 오셔서 힐링하세요!

가족, 친구, 성도분들과 멋진 여행을 통해
기억에 남는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누구나 한번쯤 자연을 즐기면서 여행을 맘껏 해 보고 싶은 시간과 장소가 있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항상 옆에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밤 하늘에 별을 보면서 우리의 어린 추억을 얘기하고 BBQ를 먹으면서 기타 연주에 맞추어
노래도 하고 춤도 추면서 자연과 하나가 되어 우리의 학창 시절의 추억을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풍요해질까요? 이곳이 바로 우리가 꿈꾸며 만들어가는 액션 캠프입니다.

Action Camp 장은…

엘에이 다우타운에서 1시간 이내, Universal Studio에서 35분 거리에 위치
Los Angeles와 Orange County 지역 교회와 비영리 단체의 행사 및 기도회 적합
외국인들과 타주에서 RV(Recreation Vehicle)여행자 다수 방문








미국내 가장 좋은 **시설여건, 서비스**

1. 단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공연장과 야외 영화도 볼 수 있는 스크린 설치
2. 샤워장, 공연장, 카페, 수영장, 배구장, 농구장, 놀이터, 오락실, 선물가게, 유료 세탁기와 건조기
3. 야외 파티와 행사를 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위락시설
4. 디레스 캐빈(Deluxe Cabin), 오토 캠핑(RV), 인디안텐트(TeePee), 텐트(Tent)장 주변에 전기, 수도, 식탁, 하수도 시설
5. 텐트사이트는 대개 잘 가꾸어진 잔디밭 위에 치게 되어 있어 안락한 잠자리를 꾸밀 수 있음
6. 회원의 경우 캠프사이트나 캐빈을 이용할 경우 할인혜택

www.actioncamp.cc OR larvresort.com

ACTION CAMP
FAITH & HOPE

ACTION CAMP
- HEALING
- EDUTAINMENT
- SPORT
- MEDIA
- GREEN

T. 661-268-1214
7601 Soledad Canyon Rd. Acton CA 93510
info@larvesort.com

Scan me!

송정명 칼럼

우리 교협 이대로 좋은가?



송 정 명 목사
미주성시화운동 공동 대표

"교협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교계 원로 되는 지도자들이 그냥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최근에 종종 듣고 있는 소리다. LA 지역 교계의 형편을 아는 평신도 지도자들의 볼멘 목소리들이다. 그런 말을 듣고 있는 마음이 편치 않다. 나도 모르게 그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을 한다. 현재 이 지역에 교협이 셋이란다.

이 땅의 이민 현장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초기 이민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한 것은 교계였고 교계가 새롭게 형성되는 이민 커뮤니티를 이끌고 있었다. 그 이유는 최초 이민자 102명 가운데 내리 감리교회 교인들이 절반가량 되었고 그들 가운데는 리드쉽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척박한 여건에서 노동자로 생활하고 있던 그들에게 교회는 안식처가 되고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관이었다.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도 교회가 주도해 나가고 있었다. 그래서 교회가 커뮤니티를 리드해 나갔고, 이민 사회는 교회의 리드에 순종하고 참조해 나가고 있었다. 조국이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다는 소식에 땅을 치며 통곡했던 곳도 교회였다. 그래서 교회가 중심이 되어 독립 기금을 모아 상해 임시정부로 보내는 일도 도맡았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교계의 리더쉽은 약화되고 시들해지게 된 것니다.

1960년도 후반에 케네디 이민법이 개정된 이후 이민 문호가 열리게 되자 한인들의 이민이 급속도로 늘어났고 이민자들을 위한 한인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게 된다. 세워지고 있는 교회들의 단합과 결속을 위해 1969년도에 남가주 지역에 남가주 한인 기독교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반세기가 넘는 기간동안 그 사명을 감당하며 교계를 연합하는 구심권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런데 최근에 남가주 교협이 셋으로 나누어졌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제 55회 총회를 열고 각 그룹마다 회장과 수석부회장을 선임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한다. 평신도들은 어느 교협이 진짜 교협인지 헷갈리고 있다. 그래서 교협이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 볼멘 불평을 늘어 놓는 것이다. 지금 미주 안에 있는 한인 이민자들의 70%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데 교계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교협이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이 되고 있으니 평신도들이 어떤 눈으로 교협을 바라보고 있겠는가?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어떤 언론기관에서는 교협의 기사를 다루지 않기로 내부적인 결정을 했다고 한다. 부끄럽고 창피한 일인가? 목회자들은 이 커뮤니티를 바르게 이끌어 나가고 기도해야 할 영적 지도자들이다. 그런 지도자들이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언론이 기피하는 기관이 되고 있다면 그 리더쉽이 세워질 수 있겠는가? 교협은 정부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할 때는 목소리를 내고 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오피니언 리더로 중추적 역할을 감당해야할 기관이다. 교협의 신뢰성 회복이 급선무다. 신뢰성을 다시 회복하려면 교협 대표들이 먼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가 되기 위해 의논해야 한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면서 자기주장만 늘어놓는다면 연합은 요원하다. 은퇴한 원로목사의 한사람으로 그들이 원한다면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고 싶다. 교협은 성탄절을 맞기 전에 먼저 하나 되는 교계의 구유 역할을 감당하여 오실 아기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포근한 기관이 되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구봉주 칼럼

습관



구 봉 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담임

30-40년 전부터, 크리스천들 사이에는 습관이라는 단어가 터부시 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기독교 역사가 100년에 돌입하면서, 기독교적 문화와 관습에 젖어, 맹목적인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천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후손이 3-4대, 현재는 기독교 역사가 140년이 되었으니, 5대에서 많게는 6대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기독교에는 '모태신앙'이라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의 어머니 뱃속에 있었으니, 자녀까지도 신앙이 있었다고 여기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표현은 초대교회에는 찾아볼 수 없으며, 신앙의 역사가 수백 수천년인 유럽과 미국에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표현입니다. 미국에는 기도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미국 현지인들 가운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이 있었다고 자랑하는 분을 본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친해지고 난 뒤, 그 사람이 미국에 있었던 대부흥 운동의 주역이었던 유명한 목사님의 후손이었음을 알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물론, 영적인 관점에서 어머니가 성령으로 충만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한 경우, 뱃속의 아기가 어떤 영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세례 요한이 어머니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을 때, 어머니가 받은 성령의 은혜로 태중에서 뛰어놀았고, 아기 예수를 가진 마리아를 만났을 때, 아기끼리 서로 교감한 듯한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의 신앙을 언급하며, 디모데의 신앙이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비롯되었음을 확신하며, 칭찬하였습니다. 말씀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를 모신 일은 정말 귀한 축복이자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하신 기도들이 쌓여 있고, 동시에 어릴 때부터, 신앙의 모습을 학습할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배운 대로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신앙도 부모의 신앙을 닮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을 둔 후손들이 조상의 신앙을 감사히 여기고,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것을 자랑스러워 하기 전에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2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과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정말 훌륭하고도 모범적인 신앙인들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분들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영적 지도자들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십일조와 감사 헌물을 정직하게 드리며, 교회의 부흥과 선교와 전도에 헌신하였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두번째는 "만약, 믿음의 조상이 귀한 신앙인들이셨다면, 나는 그분들의 신앙의 모범을 그대로 물려 받고, 배운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저는 신앙의 명문 가정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가정들을 보면서, 그들 가정에 고착된 영적인 습관과 문화적 공통점을 발견하였습니다. 1) 첫번째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과 문화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부모나 형제에게 기도 요청을 하며, 스스로도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늘 성경을 읽습니다. 2) 두번째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언어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족끼리 비난을 일삼지 않습니다.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2세 한인이 백인 변호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백인 변호사의 가정은 10대 이상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처음 시부모님을 만났는데, 얼마나 자신을 아껴주는지, 만날 때마다, "하니, 알유 오케이?"라며, 속삭이듯 간지럽게 말하길래, 처음에는 가식으로 오해할 뻔했다고 합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족 모임에서 함께 눈시울을 붉히며, 서로 돕겠다고 난리라고 합니다.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긍정적인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서, "이 사람들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만날 때마다 도무지 적응이 안된다고 합니다. 3) 세번째 선한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서 돕는 습관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서 소개한 한인 2세와 결혼한 백인 변호사는 욕심이 없다고 합니다. 돈에 대한 걱정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시겠지"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4) 네번째, 하나님 일, 교회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지고 헌신하는 습관과 문화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일과 재정을 책임지고자 하는 주인정신과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시골에 교회를 건립하기 위해 벽돌을 직접 날랐고, 그러한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5)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나 선교사와 같은 종들을 사랑하여, 아끼고, 적극 후원하고, 섬기며 대접하는 습관과 문화가 있었습니다. 만약, 위의 5가지 중에 적어도 3가지 이상이 여러분의 가정에 정착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신앙의 명문가정화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직 갈 길이 먼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지극히 섬기면,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더욱 귀한 일을 그에게 맡겨 주십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 나가는 사람은 진실된 신앙인입니다. 그런 개인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 드립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S사랑하는
M마음으로
G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2024년 메디케어 보험가입 및 변경기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65세 이상의 시니어세요?
메디케어 HMO 부가혜택이 많은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을 경우
보험사별 차이점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세요.



메디케어 가입 시 3가지 선택
보험회사, 메디칼그룹, 주치의 3가지를 선택하세요.
주치의가 서울메디칼그룹 소속인지 확인하세요.



이미 주치의가 있으시다면?
주치의의 의료보험 및 서울메디칼그룹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전문 보험 에이전트나 서울메디칼그룹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세요.

문의전화: **866.760.3441**

이 광고에서 사용된 지표는 SMG가 2024년에 남가주 지역의 한인 주치의와 전문의 네트워크 규모에 대해 조사한 내부데이터에 기반한 것입니다. 서울메디칼그룹은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다양한 건강보험과 함께 독립된 의사 네트워크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혜택과 네트워크 규모는 각각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헬스 플랜과 지역에 따라 다양합니다. 의료 서비스는 건강보험에 따라 제한, 제외, 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메디칼그룹 800-611-9862로 문의하십시오.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함께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죽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함께 기도한 것이 언제입니까?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

폴 밀러 | 이제롬 역
생명의말씀사 | 376쪽
26,000원

한국 교회는 성도가 모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뜨거운 기도로부터 부흥이 시작되었다. 이후로 오랫동안 매주 정기적인 기도회는 한국 교회의 동력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도는 사적인 성격이 더 강조되고, 팬데믹이 지나면서부터는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자취를 많이 감추었다

이 책은 다만 기도하는 방법이 아닌, 교회를 움직이는 원리를 보여 준다. 다양한 도표를 활용해 기도하는 교회의 성경적인 모델을 제시할 뿐 아니라, 교회의 '파워트레인' 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제적인 예를 들어 적용을 돕는다

종종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유명 복음주의 저자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대표적으로 데이비드 플랫). '새벽기도'가 특별히 주목을 받는데, 주중에 한 번 모여 기도하는 것도 점차 힘을 잃고 사라지고 있는 현실 가운데 매일, 그것도 꼭두새벽에 모여 도전적인 말씀을 듣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 나아가 '특새'라고 불리는 특별한 기도 모임까지 하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는 기독교 저자나 인도자들에게 부럽기도 하고 또 대단한 일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묘사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던가. 초대교회 사도들은 무엇보다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를 원했고, 성도들 또한 매일 성전에서 함께, 그리고 집마다 모여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교회는 왜 함께 기도하는 것을 점점 기피하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갈수록 느끼지 못하며, 기도해도 별로 효과가 없다는 불신의 마음이 더 깊게 뿌리내리게 된 것일까?

폴 밀러는 〈일상기도〉라는 책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개인의 기도 생활을 크게 개선하는 데 많은 유익을 준 저자다(CUP, 2011). '씨지저스'라는 사역단체를 운영하면서 성경 연구를 통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다. 특히 그가 쓴 몇 권의 책을 보면, 성경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보게 하고 그것을 닮아 실제 삶에 적용하게 하는 일에 관심이 많고, 또 그렇게 돕는 일에 탁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룻기를 통해 설명한 관계의 문제, 〈사랑하다, 살아가다〉가 있다(복있는사람, 2015).

밀러는 이번에 개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 기도를 다룬 책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를 썼는데, 한국에 제법 많이 알려진 저자인 J. D. 그리어는 폴 밀러의 〈일상기도〉를 통해 자기 교회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를 배우는 일에 많은 유익을 얻었다면서, 이번에 밀러가 쓴 새로운 책이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큰 유익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추천사를 남겼다.

이 책은 조직적이거나 체계적으로 쓴 책은 아니지만, 폴 밀러의 〈일상기도〉처럼 그의 간증과 여러 관찰 하거나 경험한 내용, 무엇보다 성경 본문의 가르침을 통해 교회가 왜 함께 기도해야 하는지 신선하고도 탁월한 관점을 제시한다. 먼저 밀러가 이 책을 통해 필자에게 주는 분명한 도전은 기도가 교회의 수많은 사역 중 하나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모든 사역의 핵심 동력을 제공하는 가장 근본적인 사역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말씀과 돌봄은 강력하지만, 기도가 약하다'는 말은 틀렸다. 기도가 약한 교회는 실상 말씀과 돌봄 역시 성령이 가져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지혜와 실천력으로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도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책을 통해 밀러가 말하는 바는 기도가 성도의 간구를 통해 성령께 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는 행위라는 것이다. 서문을 쓴 데인 오틀런드는 "기도-성령님-예수님-경이로움의 단순성을 깨닫게 된다면, 함께 기도하는 일이 또 다른 짐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짐을 변화시키는 활동이 될 것이다(18쪽)"고 말했다. 기도는 실제로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을 받으신 그리스도께 구하여 경이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맛보게 하는 능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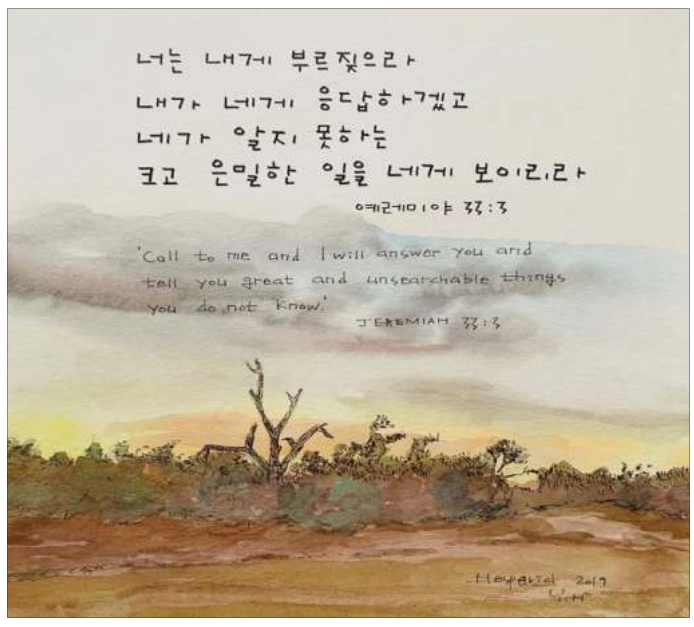
세 번째로, 밀러는 종종 이 책에서 종교개혁 이후 교회가 설교를 지나치게 높은 자리까지 끌어올렸다고 평가한다. 이것은 그가 설교를 폄훼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그만큼 공동체의 기도가 무시되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가 생각하는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한데, 성도가 서로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전혀 나누지 않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서로 공유는 하지만 기도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지 못하게 한다고 바르게 지적했다.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기도가 만들어내는 역사에 관하여 나누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효력을 불신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게 된다고 비판한 것이다. 밀러의 이 통찰은 현대 교회에 매우 중요한 도전을 준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그들 중에 계신 하나님을 더 자주 볼 수 있게 할 것인가? 기도가 바로 그 믿음을 가져다주는 호흡이고, 교회가 함께 숨을 쉴 때, 분명 더 큰 역사하는 생명력을 일으키실 것이라 믿는다. 폴 밀러의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를 통해,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많이 일어나기를 간구한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같은 제목으로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한 지난 10.27 연합예배 기도 모습.

■ 금주의 말씀 묵상 | 김영희 권사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SBS 드라마 〈열혈사제〉 (2)

〈열혈사제 2〉: 교회 이미지 희화화와 자정능력 상실

교회·국가 모두 자정능력 상실
'힘숨찐' 주인공 활약 필요해져
교회, 신앙·윤리교육 책임 방기
친교 중심 모임 통해 전도해도

경박한 신앙공동체: 즐거운 친교를 위해 희생되는 경건하고 진지한 신앙심

드라마 〈열혈사제〉는 선량한 기독교 신앙공동체 구성원들(교역자 및 신자들)에게 친근한 '허당' 이미지를 덧입히는 최근의 대중문화 속 종교묘사 동향을 반영한다. 이는 기독교계 전반에 일방적으로 사이비나 위선자 이미지를 덧씌우던 〈오징어 게임〉이나 〈수리남〉보다 우호적 태도임에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런 묘사방식 역시 신실한 신앙인들의 진지하고 절박한 신앙생활의 본모습을 은폐하고 왜곡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적절치 않다. 교회를 비롯한 기타 종교 공동체가 대중에게 경박한 집단이라는 인상을 주게 되면, 대중이 종교 공동체에 기대하는 바 또한 유머, 웃음, 친교, 그리고 무익한 위로만 남게 된다. 신앙 공동체는 분명 웃음과 위로를 선사하는 힘이 있다. 하지만 그 전에 각자의 삶을 진지하게 반추하여 믿음과 회심에 이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은 우습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대개 고통스럽기 그지없다.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따랐던 온갖 말초적 습성과 자기중심적 사고를 포기해야 하는 일이 쉽고 달가울 리 없다.

개신교든 가톨릭이든 불교든, 종파를 막론하고 이 과정을 피할 수 있는 고등종교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처음부터 끝까지 웃음과 위로만 선사하는 종교공동체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신자들의 세속적이고 말초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사이비 단체일 것이 분명하다. 대중문화 속에 묘사된 친숙한 신앙공동체의 모습, 웃음과 위로, 포용의 정서가 흘러넘치는 분위기를 바라고 교회나 성당을 찾는 이들은, 이내 기초 신앙교육을 받으며 당혹감을 느끼게 된다. 영적 유익을 위해서는 험난한 종교적 '자기객관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기대했던 신앙 공동체 가입의 '보상'이 즉시 수여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린 이들은 이내 실망을 느끼고 "사랑이 없다"는 평가를 내리며 그곳을 떠나게 된다. 이는 신앙공동체에 대한 이미지가 희화화된 사회에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런 현상에 대한 개신교와 천주교 공동체의 대응 또한 적절하지 못했다. 양쪽 모두 희화화된 신앙 공동체 이미지에 편승하는 쪽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유머와 웃음이 넘치는 설교, 삶의 어두움과 고난에 대한 고민 회피, 권고와 권면 기피, 친교와 레크리에이션 중심의 모임 활성화 같은 방안들이 교인 아닌 이들을 교회로 초대하기 좋은 환경과 분위기를 마련해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렇게 친숙하고 즐겁기만한 분위기를 기대하고 교회를 찾아온 이들은 영적 유익과 직결된 성경교육이나 생활지도 같은 단계로 들어서자마자 신앙공동체 바깥으로 다시 발걸음을 돌리게 된다.

인간이 처음 하나님을 찾을 때 갖춰야 할 경외심, 진지함, 엄숙함이 교회에서 즐거움만 기대한 이들에게 큰 심적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순간에는 교회를 친숙한 장소로 만들기 위해 도입한 여러 목회적 방안들이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변하고 만다.

무능한 신앙공동체: 도덕적 자정능력을 상실한 생명력 없는 교회의 표상

이 밖에 드라마 〈열혈사제〉의 신앙공동체 묘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교회가 내부 자정작용을 상실했다는 비판의식이다. 〈열혈사제〉에서 교회 갱신과 사회정의 구현을 주도하는 주인공 김해일 신부(김남길 분)는 정통 성직자가 아니다. 그는 과거 국정원 대테러 요원으로 활동하던 인물로, 어려서부터 시작되는 체계적 사제교육을 받은 적 없다.



▲〈열혈사제〉친숙하고 즐겁기만한 분위기를 기대하고 교회를 찾아온 이들은 영적 유익과 직결된 성경교육이나 생활지도 같은 단계로 들어서자마자 신앙공동체 바깥으로 다시 발걸음을 돌리게 된다.



전직 국정원 요원이 가톨릭 사제가 되어 범죄자들과 맞서 싸우는 활극을 담은 드라마, 〈열혈사제〉 시리즈.

그러니 일반 성직자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톨릭 교회 내 관료제의 폐해와 부패, 부조리에 저항한다. 그는 교회 신자들의 삶을 위협하는 범죄자들을 직접 수사해 처단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무력으로 교회를 지켜나가는 인물인 셈이다.

사실 중세 유럽 수도사들 가운데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있었다. 당시에는 아직 왕실이나 지방 귀족 영주들의 행정력이 향촌 곳곳에 미치지 못하던 시기였기에, 수도원들이 각 지역의 행정, 치안, 의료, 복지 업무를 대행하던 일이 많았다. 그래서 수도사들 가운데는 교회와 교구 신자들을 위협하는 외적의 침입이나 바이킹 해적들의 약탈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전투기술을 익힌 이들이 여럿 존재했다. 한국도 유사하게 사찰과 신도들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불무도(佛武道)를 익힌 승려들이 여럿 있었다. 이들은 외적 침입시 승병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중세 유럽 수도사들 가운데는 교회와 교구 신자들을 위협하는 외적의 침입이나 바이킹 해적들의 약탈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전투기술을 익힌 이들이 여럿 존재했다.

그런데 중세 유럽의 전투 수도사나 전근대 한반도의 무술을 익힌 승려들은 원칙적으로 사제로서 충분한 종교적 소양을 갖추고서 교회를 지키는 일을 담당해야 했다. 즉 이들은 각 종교공동체가 자체적으로 난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내부 역량을 갖추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반면 〈열혈사제〉에 등장하는 전투에 능한 사제 김해일은 사실상 사제로서의 교양이나 지식, 훈련은 크게 부족한 인물이다. 사제 옷만 입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교회에 파견된 전직 국정원 요원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인물이 주도적으로 가톨릭 교회, 검찰, 그리고 경찰에 정의구현을 위한 개혁의 물결을 일으킨다는 〈열혈사제〉의 서사는, 결론적으로 교회와 사법집행기관 모두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교회가 신실한 교역자나 신도들을 보호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역량을 상실했으니, '힘을 숨긴' 전직 국정원 요원의 활약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드라마 서사의 골자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열혈사제〉의 서사는 교회가 희극적 공동체일 뿐 아니라 도덕적 자정능력을 상실한 무력한 공동체라는 세간의 인식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사실 이 점에 대해서는 개신교회와 가톨릭 할 것 없이 모두 책임이 있다. 기독교 교역자들이나 신자들이 교회를 부도덕하고 위선적인 종교집단으로 보이게끔 물의를 일으킨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위에서 제기한 교회 이미지 희화화 문제와 다시금 얽히게 된다. 교회가 내부적 자정능력을 상실하게 된 것은 신앙과 윤리교육의 책임을 방기해서 초래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신자들, 특히 교회에 처음 나온 이들이 구습을 버리고 신앙인으로서 믿음과 양심을 지키는 삶을 살도록 교육하려면, 진지하고 엄숙한 태도로 회심과 삶의 태도 변화를 종용해야 한다. 그런데 이 책무는 웃음과 유머와 위로 넘치는 교회 이미지와는 정면으로 상충되기에, 결국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신앙의 질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교회들이 이런 어려움과 부담을 기꺼이 감수하고서라도 믿음을 갖고 도덕적 양심을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데 전념했다면, 양적 성장에는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신실한 믿음과 온전한 도덕성을 기반으로 충분한 자정능력을 갖춘 신앙공동체로 자리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 교회가 이렇게 굳어져버린 이미지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에 걸친 반성과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 진지한 회심과 경건을 위해 목회와 교육 방침을 새롭게 설정해야 할 시급한 책무가 우리 한국교회에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더 많은 이들이 깨우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송영 툼크 설렁탕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주안에교회에서 사역자를 모십니다

포터랜치에 위치한 주안에교회에서 함께 교회를 섬기실
풀타임 및 파트타임 사역자를 아래와 같이 모십니다.

InChrist Community Church is seeking dedicated part-time or full-time pastors
for the Korean Ministry, Education Dept., and English Ministry and a part-time staff graphic designer.

사역 부문 장년부, 교육부, EM 공동체 목사 혹은 전도사(풀타임/파트타임) & 디자인 간사(파트타임)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 소개서(신앙간증 포함), 졸업증명서, 추천서 2부,
안수 증명서 및 설교영상(목사/전도사), 포트폴리오(디자인)

접수 iccc.office3@gmail.com

문의 818-363-5887

마감 2024년 11월 30일

•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해 주시고, 영상은 파일 또는 링크로 제출 가능합니다.
• 서류 전형 후 개별 연락 드리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심사 후 폐기됩니다.



주안에교회 ICCC

In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reet, Northridge, CA 91326 icccla.org

김성은 목사의 '천하보다 귀한 생명' : 탈북민 구출과 복음 통일의 비전

[최원호 박사의 '이중창' 96]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



▲김성은 목사가 간증을 전하고 있다. ⓒ다니엘기도회

사역의 시작과 기도의 힘

김성은 목사(갈렙선교회 대표)는 24년 동안 탈북민 구출 사역을 이어오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철저히 순종해 왔다. 그의 사역은 단순히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고 복음을 전하며 북한 주민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심어주는 일이었다. 그는 단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며, 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해왔다.

이번 다니엘기도회에서 김 목사는 1만 6,000여 개 교회와 하나 되어 드리는 예배와 간증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임을 고백하며, 복음 통일을 향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탈북민들과 북한 동포들을 포함한 우리 민족 전체가 복음을 통해 치유와 변화를 경험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의 간증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증언하며 성도들에게 깊은 도전과 영적 깨달음을 선사했다.

부르심: 탈북민 사역의 시작

김성은 목사의 탈북민 구출 사역은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에서 시작되었다. 그 부르심은 청년 시절, 북한 주민들의 비참한 현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면서 그의 삶에 강렬한 도전을 안겨주었다.

당시 그는 북한의 현실을 접하면서, 자신의 신앙과 삶이 단순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깨달았다. 이 깨달음은 그의 마음속에 강력한 울림을 남겼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깊은 책임감을 불러일으켰다. 이 부르심은 그가 북한 국경에서 한 소녀를 만났을 때 더욱 분명해졌다. 당시 그는 압록강 근처에서 탈북민들의 상황을 직접 목격하며 충격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때 한 소녀가 다가와 그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같은 민족끼리 같이 먹고 삽시다."

단순한 말 같았지만, 그 말속에는 북한 주민들이 처한 절박한 현실과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이 민족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저를 부르셨으니 저를 써주십시오."

그날의 기도는 그의 삶과 사역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북한 주민들을 위해 생명을 바치겠다고 결단했다. 이후 그의 여정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순종으로 가득했다.

작은 순종에서 시작된 여정

김성은 목사의 사역은 처음에는 작은 순종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당시 북한 주민들에게 단순히 식량이나 물품을 지원하는 인도적 활동을 넘어서, 그들의 영혼과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일을 목표로 삼았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그는 북한 주민들의 처참한 삶을 직접 목격하며,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선 깊은 공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 여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커다란 사명으로 확장되었다. 그는 단순히 탈북민들을 구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영적 자유와 소망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깨달았다. 북한 주민들이 단순히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 자유로워지기를 바랐다. 그는 "북한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들의 육체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것은 반쪽짜리 사역"이라고 강조하며, 복음이 이 사역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확신했다.

소명의 확장과 헌신의 결단

북한 주민들을 위한 사역은 그에게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삶 전체를 바쳐야 하는 소명이었고, 그는 이를 온전히 받아들였다. 그는 북한 주민들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밀림을 헤치고 국경을 넘으며, 때로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부딪히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일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앞으로 나아갔다.

김 목사는 종종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표현하며, 자신의 능력과 의지로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했다. 그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 그의 사역은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놀라운 기적의 연속이었다. 김성은 목사의 사역은 처음에는 단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적은 노력으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수천 명의 탈북민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거대한 사역으로 확장되었다. 그의 순종과 헌신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얼마나 큰일을 이루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 있는 증거다.

북한 주민들의 현실과 영적 고통

김성은 목사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처한 처참한 현실을 직접 목격해 왔다. 그는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국가'라고 묘사하며, 주민들이 기본적인 생존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언급하며, 당시 300만 명 이상의 주민이 굶주림으로 사망한 참담한 현실을 증언했다. 오늘날에도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최소한의 생존조차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식량 부족과 극심한 빈곤은 이들에게 일상이 되었으며, 국가의 통제 속에서 삶의 희망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김 목사가 더욱 심각하게 본 문제는 북한 주민들이 단지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영적 어둠 속에서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북한 주민들은 예수님의 이름조차 알지 못한 채,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그들의 영적 상태를 깊이 안타까워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에게 철저히 우상 숭배를 강요하며, 하나님 대신 지도자를 신격화하고 있다.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복음이 닿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하려는 정권의 전략적 통제다.

그는 한 사례로 북한 학생 30명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 이야기는 북한 정권의 비인간적이고 억압적인 통치 실태를 바로 보여준다. 주민들은 자유로운 정보의 접근이 차단된 채, 외부 세계에 대한 그리움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 이러한 현실은 북한 주민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철저히 부정하는 것임을 김 목사는 강조했다. 그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복음 전파와 자유가 절실하다고 말하며, 북한 주민들에게 참된 자유를 가져다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확신했다.

대한민국의 가난했던 과거와 하나님의 은혜

김성은 목사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계기를 나눴다. 그는 1965년에 태어나, 대한민국이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불리던 시절을 살았다. 그의 가정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작은 어촌으로 이주해야 했고, 중학생 시절 그는 방학마다 태평양으로 나가 배를 타며 생계를 도왔다.

그는 당시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음을 고백했다. "그 시절에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느꼈지만,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 나를 다듬으셨습니다."

김 목사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재건된 것처럼, 북한 주민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때 같은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 그는 남한과 북한의 차이를 단순히 경제적 격차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남한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지만, 북한은 우상 숭배와 독재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복음이 한반도를 변화시키는 핵심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도전과 하나님의 섭리

코로나19 팬데믹은 김 목사의 사역에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다. 중국 정부는 반간첩법을 시행하며, 탈북민을 돕는 사람들을 간첩으로 간주하고 최대 1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로 인해 탈북민 구출 비용은 과거의 10배로 증가했다. "과거 3백만 원으로 가능했던 일이 이제는 3천만 원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 주셨다. 2024년 초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는 그의 사역과 탈북민들의 여정을 생생히 담아냈다. 이 영화는 미국 선댄스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았고, 미국 아카데미 장편 다큐멘터리 부문 예비 후보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국제적인 관심은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는 데 이바지하였으며, 그의 사역이 국제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영화는 그의 사역에 국제적 지지를 가져다 주었으며, 미국과 영국의 기독교 단체들이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탈북민 구출 사역은 새로운 활기를 얻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김성은 목사는 그의 사역이 한 생명을 구하는 데 집중되어 있으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1,026명의 탈북민을 구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깊이 체험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구출되지 못한 수많은 탈북민이 처한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더 많은 사람이 이 사역에 동참하기를 소망했다. "내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고통받는 동포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탈북민 구출은 단순한 인도적 지원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이다. 그는 여전히 구출되지 못한 수많은 탈북민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더 많은 사람이 이 사역에 동참하기를 소망했다.

결론: 복음 통일의 비전을 향해

김성은 목사는 자신의 사역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음을 고백하며, 더 많은 사람이 이 사역에 동참해 주기를 요청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대한민국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북한 주민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그는 복음 통일이 단순히 정치적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Loving Worship Healing Music Talk Concert

BELOVED











출연진

새롭게 하소서 MC
주영훈, 박요한, 송지은
—
러빙워십
Joseph Lee 목사
—
사랑과 평화 기타 &
싱어송 라이터 조범진

스페셜 밴드 & 게스트 싱어

총괄 프로듀서
Troy Choi

Ticket 문의

$30 | $40 | $50
—
213.357.1565
—
La Mirada Theatre
Box Office

lamiradatheatre.com

주소

La Mirada Theatre
14900 La Mirada Blvd

금 | FRIDAY
12.13 — 8PM

토 | SATURDAY
12.14 — 7PM

협력 교회
나성영락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베델교회
새생명비전교회
은혜한인교회
충현선교교회
토랜스제일장로교회토
렌스 조은교회
LA동부사랑의교회LA
온누리교회

협력 단체
기독일보
KBS America
YTV America
Soon Movement Global

주최 & 주관
Loving Worship